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2호 2020년 05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가족관계의 다양한 문제, 미리 알고 준비해요”

4김포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4월 16~17일 이틀간 센터교육실에서 2020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지지리더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족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강의 해 호평을 얻었다. 강의 내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 송하성 기자

[기획]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를 극복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면한 어려움도 크다. 집합프로그램을 비롯해 대면 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모든 센터가 현재 휴관 중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휴관 중에도 쉬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일상이 되는 미래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사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는 센터의 의견을 질문했다. 이 기사는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을 지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Q.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대익(수원): 정부의 휴관 조치에 따라 이용자 방문을 금하고 있다. 운영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잠정 연기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내에 공적마스크 구입이 어렵거나 공공시설 방문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아, 마스크 배부

활동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인당 5매씩 배부하기로 정했다. 외국인 많이 방문하는 기관과는 따로 협의해 필요 수량을 지원했다.

이수익(용인): 초기에는 시설보수공사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후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내 거주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코로나19 극복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기획사업을 준비했다. 현재 화상전화, SNS 서비스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이나 면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가족단위 DIY 키트 제작배포 등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Q. 그간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 및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했나.

신순철(이천): 결혼이주여성 동아리 자조모임 구성원을 중심으로 건강마스크를 제작했다. 이후 성인용 마스크 100개와 아동용 100개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후원했다. 센터의 방역작업 또한 꾸준한데, 매주 업체를 통해 전체 건물을 소독하고 있다. 별도로 센터 자체 소독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민 가족을 위해서는 이천시와 협의하여 자가격리자를 위한 통역 및 안내문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9개 국가 언어권에서 온 16명의 통역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34면에서 계속>

최예지,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중국어(Chinese) 中文 13, 24, 29, 39, 42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3, 18, 23, 29, 35, 44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7, 39, 40 영어(English) 19, 25, 46 네팔어(Nepali) नेपाल 14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4, 3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21, 28 동티모르어 31

정책 Policy 2 교육 Education 11, 21, 25, 27, 29, 46 생활정보 Information 3, 4, 14, 18, 20, 24, 32, 48 육아 Child Care 40 인권 Human Rights 19 보건 Health 26, 45 복지 Welfare 2, 10, 16, 17, 27, 35, 39, 42 코로나19 Corona19 6, 8, 22 외국인근로자 Foreign Worker 31 법률상식 Legal Advice 13 기고 Column 23, 43 기획 Project 1, 34 인터뷰 Interview 7 근로 Labour 21, 24, 29, 36, 39, 40 나의 학습 My Study 33, 38, 41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경기도 1천명 대상 긴급 여론조사 실시…다문화가족에도 지급 결정 '찬사'



경기도민 대다수(86%)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1+2 순위 중복응답)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 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다’(68%)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다소 낮았다.

도민 다수(80%)는 코로나19로 인해 국

가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가계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고, 도민의 40%는 6개월 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직자·실직자를 포함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신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84%가 찬성했다. 또 도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대다수(90%)가 찬성했다.

도민들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서서히 진정되어가는 단계’(58%) 또는 ‘거의 안정되어 가는 단계’(35%)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속 확산되는 단계’라는 의견은 5%에 그쳤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 대처에 대해서는 89%의 도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월 조사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4월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7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도 다음 달 중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받게 됐다.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4만8,000여 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 명 등 10만9,000여 명이다. 송하성 기자

독립운동의 산 증인 ‘고려인 동포’ 정책 돕는다

경기도 ‘고려인동포 정책지원 사업’ 공모 6개 단체 선정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독립운동의 산 증인들인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도내 6개 고려인동포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고려인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려인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식, 이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같은 동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간의 화합을 도모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공모를 추진,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심의해 사단법인 너머, 더큰이웃아시아, 고려인센터 미르 등 도내 6개 단체를 올해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올 연말까지 도내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8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한글·한국문화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고려인 독립운동 역사콘서트 및 사진전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 공유 및 학습의 장을 마련

한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고려인 자립커뮤니티’ 운영 등 고려인들만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상생화합의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도내 외국인 및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긴급지원 받을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휴·폐업, 고용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상승을 돕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 물품 배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시·군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고양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 이용과 여가활용 두레생협에서!

고양파주두레생협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26일 성석동 방아깨비 주말농장에서 이용자 대표들과 고양파주두레생협의 임원진들이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가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배우자 자조모임 ‘hunnam들의 토크’ 참여 가정과 함께 주말농장을 통해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물로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통한 프로그램을 월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양파주두레생협 관계자들은 이날 배우자 자조모임 hunnam들의 토크 회원들과 함께 성석동 방아깨비 주말농장에 모여 농사지을 땅을 고르고 상추, 고수 등 농작물을 심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양파주두레생협(이사장 우미란)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활발히 실천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을 통해 자연과 생활환경을 되살리는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미란 고양파주두레생협 이사장은 "앞으로 고양시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문화가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계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파주고양두레생협에서 제공하는 텃밭을 가꾸고 월별 먹거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른 가족들과 서로 협력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주고양두레생협의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다문화가족들도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я с детьми, посещающих начальные, средние и старшие школы, получат комплек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и, посещающими начальную, среднюю и старшую школы, с мая получат комплек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с овощами и фруктам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том, что с мая месяца будет запущен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Комплек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состоящий из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есть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ой,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школ. Данный проект начат в вось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ах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и на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оведённом 27 апреля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стречаются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 ообщил: "Восемь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включая Кёнгидо и Сеул, реши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о поставке свежих продуктов школьникам", однако «Многие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е решаю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ак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таких как подготовка бюджета.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артийной фракции в конгрессе подчеркнул: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19 было перенесено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перестали работать

школьные столовые, в следствии у фермеров и владельце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явились осложнении в сбыте продукции. Чтобы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месте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мудрое решение. Было решено запустить проект «Комплек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Чжо Чжонг Сик сообщил: "После соглашения сторон, как только план продвижения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ён, начиная с мая комплекты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дети учатся в начальной,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школах". "Способы поставок будут различные: пересылка по почте, интернет купоны,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упонов дл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мор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Чжо объяснил: "7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ещё не реши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проекте: Пусан, Тэгу, Инчхон, Ульсан, Чунгнам, Кёнбук, Чеджудо и др.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этот проект с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ещё не участвуют. Так же проверяются фонд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др."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Ю Ын Хе отметила: "Данны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в поддержку семьям в целях сокращения расходов родителей на домашнее хозяйство, а так же укрепить здоровое питание школьников." на ряду с эти

м: "Обращаясь к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ручил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ть семь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Министр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им Хён Су сообщил: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амках компании и поддержки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амоизоляции закупит в три этап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1645 тонн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Если план " комплек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будет продвинут и расширен, это в большей мере поможет мал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фермерам".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 "Не подлежащие долгому хран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дукты должны будут утилизированы посл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Высказыв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создание рынка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тогом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артии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роверяющий (из комите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Ли Чжэ Чжонг сказал: "С 9 числа начались занятия, для городского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задачей решить как быть 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м снабжением в прошедший период." И упомянул: "Мы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найти выход." <한글 기사 48면> 장울가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 2019.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

법무부는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2019. 12. 11. 부터 2020. 6. 30.까지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

2020. 7. 1.부터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입국금지

- 2020년 7월 이후 3개월 간은 원 범칙금액의 30%, 그 이후에는 50% 부과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입국금지 1~10년 적용, 그 이후에는 3~10년 적용

2020. 3. 1.부터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6개월~1년 적용, 범칙금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선불카드

지급 대상	3.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자(해당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 포함)
신청 기간 및 방법	2020.4.20~7.3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신청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 5월 중)
접수 시간	행정복지센터는 평일과 주말에 신청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농협은행 영업시간 내 신청 가능 (평일) 09:00~16:00 (주말) 접수 받지 않음
사용 기간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단, 사용 마감일은 8.31.)
사용 매장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형상업소 등을 제외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방문신청 접수 계획

세대원 수	접수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행정복지센터)	
4인 이상	4.20~4.26	생년 끝자리 (1, 6)	생년 끝자리 (2, 7)	생년 끝자리 (3, 8)	생년 끝자리 (4, 9)	생년 끝자리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 가구	4.27~5.3							
2인 가구	5.4~5.10							
1인 가구 및 미신청자	5.11~5.17							
전체	5.18~7.31	누구나 신청 가능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새로운 경기 <공정환 세상>

질병관리본부
KCDC

2020.3.2.

自宅待機者の生活の心得

✓

感染症の伝播を防ぐために外出禁止

※自宅待機対象者は、「感染症の予防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感染症の伝播の予防のために自宅待機にご協力ください。
*第80条(罰則)に基づき、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独立した空間で一人で生活する

- 部屋のドアを開けたまま窓を開けて頻りに換気を行う
- 食事は一人で
- できれば本人しか使用しないトイレと洗面台のある空間を使う (共同で使用する場合、使用後に塩素系洗浄剤などの家庭用消毒剤で消毒を行う)

✓

診療などでやむを得ず外出する場合、必ず管轄の保健所(担当公務員)にまず連絡する

✓

家族や同居人と会話するなどの接触は避ける

- やむを得ない場合、向かい合うことは避けてマスクをしたまま2m以上距離を置く

✓

本人専用の用具・用品(タオル、食器類、携帯電話など)を使う

- 衣服や寝具は別にして洗濯する
- 食器類などは区別し、きれいに洗う前に他の人が使わないこと

✓

健康の心得を守る

- 手洗い、手の消毒などの衛生管理を徹底する
- 咳が出る場合は必ずマスクを着用する
- マスクがない場合は服の袖で口と鼻を押さえて咳をし、手を洗って消毒する

自宅待機治療期間中、管轄の保健所(担当公務員)が連絡を行って症状などを確認する予定です。自宅待機が解除される日まで、ご自身で発熱、症状などをモニタリングして記録してください。

症状のモニタリングの方法

✓ 毎日朝夕に体温を測る

✓ 呼吸器症状など感染による症状が出ていないか自分で健康状態を確認してモニタリングフォームに記録する(書式6)

✓ 管轄の保健所(担当公務員)から1日2回以上連絡がある度に体温、症状について知らせ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主な症状

✓ 発熱(37.5℃以上)

✓ 倦怠感

✓ のどの痛み

✓ 呼吸器症状(咳、呼吸困難など)

✓ 肺炎

질병관리본부
KCDC

2020.3.2.

自行隔离患者 生活守则

✓

为防止感染传播, 禁止外出

※ 根据《关于传染病预防及管理法律》, 自行隔离对象为防止感染传播, 须协助隔离。
* 根据第80条(处罚规定), 不予协助时将被处以300万韩元以下罚款。

✓

在独立空间内进行个人生活

- 在关闭房门的状况下经常开窗通风
- 独自用餐
- 尽量使用个人洗手间与洗脸池A(公用时, 使用后用漂白剂等家用消毒剂进行消毒)

✓

因诊疗等必须外出时, 须先与管辖保健所(主管公务员)联系

✓

避免与家人或同居人进行对话等接触

- 必要时请避免面对面, 且须佩戴口罩保持2米以上的距离

✓

使用个人物品(个人毛巾、餐具、手机等)

- 衣服、寝具须单独清洗
- 餐具等须单独清洗, 清洗前避免其他人使用

✓

遵守健康守则

- 严格保持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习惯
- 咳嗽时务必佩戴口罩
- 未佩戴口罩时, 须用袖子遮挡口鼻后咳嗽, 咳嗽后须洗手并进行手部消毒

居家治疗期间, 管辖保健所(主管公务员)会来电确认症状等截至隔离解除日, 请检测并记录本人的发热等症状

症状检测方法

✓ 每日早、晚测量体温

✓ 管辖保健所(主管公务员)每天2次以上来电时, 请告知体温、症状

✓ 自行确认是否出现呼吸道症状等感染症状, 并在检测格式中填写健康状态(格式6)

新型冠状病毒COVID-19主要症状

✓ 发热(37.5℃以上)

✓ 身体疲倦

✓ 咽喉痛

✓ 呼吸道症状(咳嗽、呼吸困难等)

✓ 肺炎

외국인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5가지 검역 규칙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при COVID-19) 5 основных правил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облюдаться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13 апреля 2020 г.)

Изменения в жизни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из-за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пандемии COVID-19.

Представляем 5 основных правил,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овать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аряду с соблюдением карантина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5 основных правил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Правило 1) Оставайтесь дома в течение 3-4 дней, если 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уете.

Причина: COVID-19 легк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даже при наличии легких симптомов и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заболевания. Уменьшение контактов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при появлении симптомов может снизить вероятн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① Оставайтесь дома и отдохните в течение 3-4 дней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 Симптомы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повышен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кашель, мокрота, боли в мышцах, заложенность носа и другие симптомы

②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воздержитесь от встреч с окружающими, а также носите маску дома, если вы проживаете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Воздержитесь от конта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от общения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иема пищи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и людьми с сопутствующ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③ Если симптомы исчезли после отдыха, возвращайтесь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о если во время отдыха сохраняется температура выше 38 градусов или симптомы ухудшаются, позвоните в колл-центр (☎ 1339, ☎ код региона +120) или в больницу

④ Носите маску при посещении мест для покупки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ьницы, аптек и т.д.

⑤ Компании и работодатели должны следить, чтобы люди с симптомами не ходили на работу

и возвращались домой.

(Правило 2)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равную расстоянию вытянутых в стороны рук.

Причина: В основном COVID-19 передается через капли слюны. Соблюдение расстояния не менее 2 метров уменьш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попадания слюны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при кашле или чихании, что снижает риск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①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не посещайте замкнут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людные места

②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в 2 метра между людьми, минимум 1 метр в тесных условиях

③ Расположитесь так, чтобы вы могли держаться на достаточном расстоянии от других людей

④ Обеспечьте необходим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держать дистанцию в 2 метра и ли скорректируйте время при собрании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⑤ Не пожимайте руки и не обнимайтесь

(Правило 3) Чаще мойте руки и прикрывайтесь рукавом, когда кашляете.

Причи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опадания вируса в организм через грязные руки и минимизац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люны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этикета кашля.

① Мойте руки под водой с мылом не менее 30 секунд или используйте дезинфицирующее средство до и после еды,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туалета, улицы, а также после сморкания, кашля или чихания

② Не прикасайтесь к глазам, носу или рту чужими руками

③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раковины и мыло в част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повсюду разместить дезинфицирующие средства для рук - Мойте руки раз в два часа

④ При кашле или чихании прикрывайте рот платком, салфеткой или рукавом

⑤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симптомы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такие как повышен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кашель, мокрота, боли в мышцах, заложенность носа и т.д., либо вы 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уете, наденьте маску,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других людей.

(Правило 4) Помещение проветривайте не менее 2 раз в день и регулярно дезинфицируйте.

Причина: Проветривание снижает концентрацию капель слюны, содержащих коронавирус,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воздухе, а дезинфекция поверхностей, на которых могут быть капли слюны, снижает риск заражения COVID-19 через рук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воздухе, а дезинфекция поверхностей, на которых могут быть капли слюны, снижает риск заражения COVID-19 через руки.

① Если возможно естественное проветривание, держите окна открытыми, если окна нельзя открывать из-за мелкой пыли или по другим причинам, проветривайте помещени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2 раза в день по 15 минут

- При проветриван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крывайте двери и окна

② Держите в чистоте помещения, которые вы посещаете каждый день, такие как дом и офис, а также минимум раз в неделю дезинфицируйте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часто трогают руками

- Телефон, пульт, ручки, дверные ручки, стол, подлокотники, выключатели, клавиатуру, мышь, копир и т.д.

③ Ежедневная дезинфекц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 которые посещ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а также дезинфекция предметов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и предметов, к которым часто прикасаются

- Предметы, к которым часто прикасаются: кнопки лифта, двери, ручки, перила, дверные ручки, подлокотники, выключатели и т.д.

Предметы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тележки и т.д.

Соблюдайт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ри дезинфекции (способ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личество и т.д.)

- Дезинфицирующие средства: дезинфицирующие салфетки, спирт (этиловый 70%), гипохлорит натрия (хлорка)

(Правило 5)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поддерживайте друг друга.

Причина: Коронавирус может быть преодолен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сех и усилиям каждого. Мы должны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о, в котором люди заботятся, утешают друг друга и слаженно работают.

① Поддерживайте связь с близкими людьми, даже если вы не собираетесь вместе

② Важно думать о солидарности в обществ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стигме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тех,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изоляции и т.д.

③ Заботьтесь о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слоях населения

④ Проверяйте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информации, не делитесь слухами, воздерживайтесь от чрезмерного погружения в СМИ

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비대면 사업으로 돌파한다

<인터뷰>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노력 필요



Q.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A. 센터는 여전히 잠정휴관 상태다. 내근직 직원은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기 위해 개인당 1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주로 내부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덕분에 협력기관이나 자조모임 대표와 유선 회의가 잦아졌다. 때때로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업무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면 모두 전화로 진행한다. 4월 16일부터는 장기 휴근 중이던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운영을 재개했는데,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준비가 맞물려서다. 그 외에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은 모두 중지된 상태나, 언어발달지도교육은 전화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Q. 그간 고양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A.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 센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오가는 방문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휴관 중에도 방역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Q.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19

가 장기화된다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무엇보다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경우 교육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언어 교육의 특성상 습득에 상당한 지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지역적 특성과 센터의 상황을 종합해 서비스 지원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 중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방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Q. 임시휴관 장기화로 센터가 다문화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현재 우리 고양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회원이 3100명이다. 센터의 직원들이 이분들에게 안부전화를 돌린다. 또 센터에서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면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중국팀, 베트남팀, 기타팀 등 3그룹으로 나누어 자체 매뉴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현재 85% 가량 진행됐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회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놀랍다.

A.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가장 많이 표현한 욕구는 취업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일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는 분도 많았다. 가장 많은 질문으로는 “센터는 언제 여느냐” “한국어교육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느냐”였다. 이로 인해 역시 가장 급하게 문제가 되는 게 한국어 교육의 재개라는 게 파악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여가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Q. 전화 조사에 어려움은 없었나.

A. 코로나19 이전에 고국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 또 센터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통화가 연결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센터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주셨다. 안부 전화로 시작해서 일종의 전화상담이나 사례관리로 진전한 경우도 있다.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도 외국인 회원의 깊은 속내를 듣는 경험에 놀라고 있다. 그간 센터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

Q. 코로나 사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

A.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고양센터 역시 잠정 휴관 조치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지금은 용수철이 튀어 오르기 직전의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센터가 무척 바빠지리라는 예감이

든다. 센터 회원들의 열망도 열망이거니와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이 쉬는 동안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 곧 이용자들의 웃음소리와 강사들의 열띤 강연소리가 들릴 것이라 예상된다.

Q. 코로나와 관련해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A. 한국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한 나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컨트롤타워의 지시와 한국국민이 가진 높은 수준의 시민성이 어우러진 결과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대 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가 외국에서 시작되었고 4월 이후 외국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굳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대전제에 앞서 실질적인 한국의 발전 문제만 생각해보도 그렇다. 현재 코로나19로 계절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농어민들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가동되지 못하는 공장도 여러 곳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감수성이 더 중요한 때이다. 다문화사회라는 정책은 대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의 현상 즉,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1면>

최예지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 당선자, 다문화가정 · 지역민 어우러지는 고양 조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준호 당선인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를 후보로 나서 52.5%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도전을 시작하면서 다문

화가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 4일에는 고양이민자 통합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정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에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 통합지원센터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원기관을 한 곳으로 모은 서울시의 ‘서울글로벌센터’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주시

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후보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기능을 추가해 공공성을 부여하고, 다문화가정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초기정착, 보육,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선이 확정된 후 한준호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 따뜻한 시선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며 “약속드린 것처럼 고양

의 목소리가 되겠으며 특히 낮은 자세로 항상 귀를 열고 눈을 맞춰 지역구민 여러분과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또 “고양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함께 나눈 약속과 다짐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들고, 더 큰 고양시를 위한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외국인주민 배려 빛나는 안산시

안산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면 마스크 2만개 추가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면마스크 2만개를 지원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외국인주민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돼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국적 동포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주민은 약국이 아닌,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해

야 했다. 하지만 최근 생산된 마스크 대부분이 공적판 매처로 유통되면서 이마저 여의치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제도상 마스크 사각 지대 해소를 통해 외국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지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방역의 생활화에 대비해 1회용 마스크가 아닌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안산시 귀한동포연합회 등을 통해 각각 1만개씩 총 2만개를 지원했다.

이는 안산시에서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이 정보 제한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공적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에게 면마스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 중국동포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안산 시귀한동포연합회를 통해서도 면마스크를 배부해 마스

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외국인 주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지원하는 면마스크는 4월 8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한 제품과 동일하게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 등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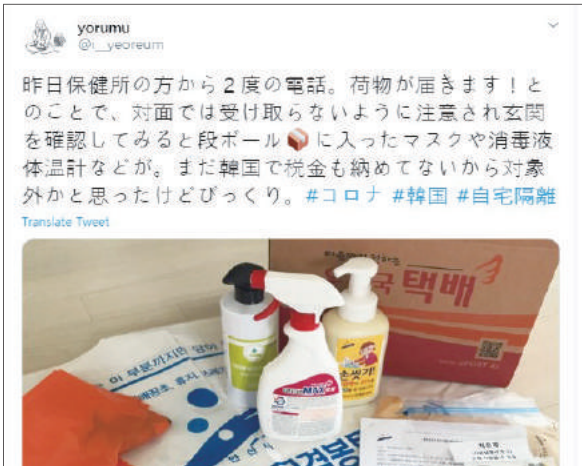
이번 면마스크 지원은 공적마스크 1인당 3개 확대,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입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마스크 수급 곤란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관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등에 철저히 대비해 공공방역 모범도시 안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품격과 배려 갖춘 자가격리자 관리...온라인에서 큰 화제

안산에서 자가격리한 일본인 구호품 소개 등 “보건소 직원 배려 감사”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생활을 했던 30대 일본인 여성이 안산시 보건소 직원의 배려와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한국의 국격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4월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여성 A(38)씨는 자가격리 생활상을 개인 SNS에 전하며, 안산시 보건소 직원에 대해 “얼굴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배려를 느꼈다”고 적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4월 2일 국내에 입국한 A씨

는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인 안산시 단원보건소로부터 지난 4월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개인 SNS에 자가격리 일상을 전하며 안산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은 구호물품을 소개하는 등 자가격리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관을 확인했더니 큰 박스에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이 있었다”며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아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는 이어 4월 8일에도 “구호물자를 제공했다는 안산시 직원의 전화를 받고 확인했더니 큰 종이박스에 밥 12개, 쌀 4kg, 라면 16개 등이 도착했다. 감사하다”고 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은 SNS상에서 3천300회 이상 퍼져나갔고, 5천400여 명의 한일 누리꾼이 관심을 나타냈다.

게시글에는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 대단하다” “대응에 놀랐다” “한국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댓글을 게재하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안산시는 공항검역소를 나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한 뒤 자가격리앱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함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소독약품 등 다양한 격리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5만4천원 상당의 쌀과 라면, 김 등 식료품이 담

긴 개별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최근 외국인주민에게는 해당 국가의 식품도 담아준다.

특히 주변 이웃에게 자가격리 중인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비대면으로 조용히 전달하는 등 배려심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 4월 13일 유튜브에 게재돼 조회 수 119만을 넘긴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에 담겨 큰 화제가 돼 국내 언론은 물론 한일 누리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씨는 보건소 측에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매일매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서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국내 정착을 위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알려져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역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당당한 구성원이자 코로나19로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주민에게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남다른 정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예지 기자

스마트폰 없는 해외입국자 지원

안산시, 30대로 확대, 철저한 관리 나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해외입국 자가 격리자와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에게 모두 스마트폰을 지원해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안산시는 4월 9일부터 스마트폰이 없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원했다. 4월 21일에는 준비한 10대가 모두 지원돼 20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스마트폰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설치되어 있다. 매일 앱을 통한 증상 및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영상통화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모니터

링을 위한 영상통화 시스템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영상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외출 금지 등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상통화 외에도 전화 모니터링, 긴급 방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임대한 스마트폰은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 회수해 고장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소독 절차를 거쳐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영상통화’로 자가격리자를 점검하는 전담공무원에게도 관리용 스마트폰을 임차 지원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방역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해외입국자를 관리해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2주간의 자가격리가 다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코로나19 지원시책 안눈에!

안산시, 정책안내 홍보물 제작배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안내 홍보물 8천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외국인주민들이 안산시의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간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했으나, 정보의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많으니 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4월 24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안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시책 안내’ 리플릿 8천부를 제작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전철역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배포했다. 현재 같은 자료를 안산시 홈페이지

페이지(www.an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손쉬운 신청을 위한 모든 설명이 담겼으며 총 6개 분야, 23개 지원시책을 수록해 수혜 분야별로 정책을 구분하고 누구나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야별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일반분야 4개 정책 ▲방역물품 무상지원서비스,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3개 정책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생활복지분야 5개 정책 ▲공영유료주차장 무료개방 부분 유료화 등 교통분야 2개 정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면제 등 경제분야 6개 정책 ▲코로나19 방역 대응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분야 3개 정책 등을 안내한다. 최예지 기자

2020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일은 추후 센터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2020년 한국어교육

- 기초반 : 화, 목 10~12시 (207호)
- 말하기1 : 월, 수 14~16시 (207호)
-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 화, 목 14~16시(101호)
- 말하기2 : 화, 목 14~16시(404호)
- 쓰기반 : 화, 목 14~16시(104호)
- 자녀학습을 위한 한국어 : 월, 수 10~12시(205호)
- 토익1 : 월, 수 13~15:30 (104호)
- 토익2 : 화, 목 13~15:30 (207호)

☎ 031-599-1703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대상: 초등학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내용:

- 주중반_중국어(초급)
- 주중반_중국어(중급)
- 주말반_중국어(초급)
- 주말반_중국어(중급)
- 주말반_베트남어(초급)
- 주말반_베트남어(중급)
- 주말반_베트남어(고급)
- 주말반_베트남어(고급)

☎ 031-599-1713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과정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ITQ)

일시: 매주 월, 목 (10:00~13:00)

내용: ITQ 한글

장소: 2층 컴퓨터실

바리스타 자격취득과정

일시: 매주 월, 수 (09:30~12:30)

내용: 바리스타 자격취득교육

장소: 4층 요리교실

1인 미디어 양성과정

일시: 추후공지

내용: 영상편집 교육, 영상촬영 실습, 유튜브 개설 등

장소: 2층 컴퓨터실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와 모국어 사용이 원활한 자

☎ 031-599-1704

베이커리 창업 '4시방'

제과제빵 실습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 및 업동조합 등 소자본창업 진로 지원

내용:

- 기본과정(우유식빵, 모카빵 등)
- 심화과정(인기상품 모니터링 및 제작)
-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등

대상: 한국 거주 3년 이상,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 결혼이주여성, 취업 및 창업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

장소: 4층 요리교실 ☎ 031-599-1701

특별 프로그램

- 요리교실 : 기초한국요리, 외식요리 등
- 검정고시교육 : 2020년 8월 검정고시 대비 교육 (초등, 중등)
-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 소그룹 교강, 부모-자녀 관계개선 교육 등
- 문화프로그램 : 난타, 통기타 교실 등

[월드페스티벌&키다리마켓]

일시: 4월 25일(토) 예정

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장소: 안산글로벌문화센터 앞마당

내용: 문화체험, 국가별 먹거리 체험, 나눔장터, 체험부스 등

☎ 031-599-1708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소통 공간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내용:

- 국가별 자조모임
- 테마별 자조모임 : 요가, 예뻐맘씨(재봉틀) 등
- 자녀성장지원: 키즈 춤바 댄스
- 자녀돌봄지원: 부-자녀 관계형성 프로그램
- 지역사회통합지원: 다문화치타임, 다문화 패밀리

☎ 031-599-1708

언어발달지원사업

일시: 상시(월~금)

내용: 언어평가자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알아보고, 평가 후 언어발달지원을 보이는 아동에게 언어지도서비스 제공

대상: 영유아-만12세 이하의 안산시 거주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기간: 6개월

교육내용: 개별수업 또는 모둠수업을 통해 언어영역, 말영역 등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 촉진

장소: 센터 및 외부기관 ☎ 031-599-1706

통·번역지원사업

일시: 상시(월~금)

내용: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장소: 센터 및 외부기관 ☎ 031-599-1716

상담사업

심리·정서·대인관계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개인 및 가족상담

일시: 상시

내용: 심리·정서 / 부부, 부모자녀, 고부, 세대 갈등 / 위기가족개입

방법: 전화상담 / 면접상담(개인, 부부, 집단)

※사전 전화 접수!

장소: 센터 상담실 ☎ 031-599-1700

사례관리 사업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일시: 상시(월~금)

내용: 가정폭력, 이혼 등 상황적 위기개입 / 정보, 소득, 인적자원 부족 문제 개입 /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대상: 다문화가족

장소: 센터 및 외부 ☎ 031-599-1700

방문교육사업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파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시: 상시(2~12월)

내용: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

-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자녀생활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법: 주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장소: 대상자 가정 ☎ 031-599-1703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0~7세(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부모-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부모코칭, 활용프로그램(자조모임)

장소: 센터 강의실 ☎ 031-599-1714

Facebook 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페이지 팔로우, 중앙요를 누르시면 빠르게 센터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안산시 위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s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시민 관심 폭발, 첫 주 28만 명 신청

외국인주민 포함 안산시민 모두에 지급…첫 주 지급대상자의 38.5% 신청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4월 20일 시작됐다.

4월 27일 안산시에서는 신청 개시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지급대상 시민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시민은 지급대상자 73만6천47명의 38.5% 수준인 28만3천508명으로 신청금액은 28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12만7천272명(46.5%)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는 14만1천428명(53.5%)이다. 실제 접수가 이뤄진 건수는 온라인 신청이 많았으나 방문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전체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안산시는 생활안정자금 지급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공공) 클라우드와 접속 대기 프로그램을 활용,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고 신청자가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접수하도록 정한 신청요일 5부제의 경우 접수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했으나 이후 서버 처리 용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도록 5부제를 해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주변에 안내문 등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 지급하는 안산형 재난기본소득

안산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안산시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국인주민은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주민은 1인당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운’으로 지급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16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관내 외국인주민도 우리 안산 시민으로 차별과 소외 없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의 70% 수준에서 반영됨에 따라 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17일 안산시에서는 원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NH농협과 코나아이㈜,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 22일에는 관내 외국인지원 기관 및 단체와 회의를 개최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홍보하고 각종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찬 안산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외국인주민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난민가정, 이민자가족,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글로벌청소년센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귀한동포연합회 안산지부 등 9개 기관으로 참석을 최소화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이미 안산시 다운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성인이라면 온라인(daon.ansan.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7일까지는 평일 및 토요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을 들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5월 17일 이후에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평일 업무 중 방문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달리 5부제가 계속해서 적용되니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으로 운영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4인 가구 이상 세대의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3인 가구 세대의 신청을 받고 2인 가구는 5월 4일부터 10일, 1인 가구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은 지급승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최종적으로 올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된다. 기존 다운 카드 사용자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이 먼저 쓰인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윤화섭 시장, 코로나 확진자 완치율 87.5% ‘외국인·예외입국자 감염사례 없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1일 이후 20여일 가까이 추가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입원환자 16명 중 14명이 퇴원해 87.5%의 완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4월 20일 밝혔다.

4월 10일 1·9·16번째 확진자가 한꺼번에 퇴원한 데 이어서 부녀관계인 10·13번째 환자가 입원 24일 만에 잇따라 퇴원하는 등 이날까지 총 1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들 퇴원 환자들은 평균 18일 동안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이유

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려됐던 외국인 주민 감염 사태는 없었다.

4월 1일 해외에서 귀국해 관내 마지막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도 4월 10일 퇴원하면서 해외입국자에 의한 2차 감염사례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국 평균 완치율 75.4%보다 높은 87.5%를 달성했다”며, “그 배경에는 초기부터 실시된 민관 협력 속 강력한 방역 활동,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이 낳은 결과”라고 전했다.

현재 남은 환자 2명은 각각 과주병원(1명), 용인생활치료센터(1명)에 분산 치료 중이며 앞으로 완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해 모두 음성인 나오면 격리가 해제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4월 1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는 소식은 시민 모두가 기다리던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며 “다만, 완치 후 재양성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실천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히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국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예산결산특별위, 부위원장에 성준모 경기도의원 선출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형열, 이하 ‘예결위’)는 3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결위 중인 부위원장에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7조(부위원장)는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출범한 제10대 제2기 예결위는 이동현·이나영(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나영 전(前)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04.15.)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도의원을 사퇴하여 신임 부위원장 선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예결위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2020.03.23.)를 열어 성준모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성준모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저를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성준모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후보 단원(갑) 공동선거본부장, 제5,6대 안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이지은 기자

제1교육위원외 천영미 위원장, 연구단체 경기교육연구외 착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연구회(위원장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안산2)는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학생 인권과 상호보완적 측면에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연구회 천영미 회장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 간 균형과 상호보완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안전한 개학
다 함께 촘촘하게 준비해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평상시 가정에서

- ★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고 만일 의심 증상(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 ★ 자녀에게 손 씻기와 개인위생 실천교육을 해주세요.

손 씻기 방법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

가림예절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는 안전하게 버리고 손수건은 깨끗하게 세탁하기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 사용 전후 손 씻기
· 입술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도록 가리고, 쓰고 있을 때 끝부분은 만지지 않기
· 젖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관리하기

- ★ 자녀에게 의심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관찰하세요.
- ★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상담,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 ★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 선생님께 알린 후 등교하세요.
- ★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공감해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 ★ 만일, 자녀가 자가격리 중이라면, 두려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세심한 관심과 지지를 해주세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전

- ★ 모든 학생 발열 검사
- ★ 37.5℃ 이상의 발열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바른 귀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대기공간에서 보호)
- ★ 지정된 전담 관리인이 학생 건강상태 확인

※ 발열 검사 시,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함칙 ※ 검사 실시자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등교 후

- ★ 교실 간 이동, 불필요한 활동 자제
- ★ 교실창문 수시개방 등 환기 생활화
- ★ 학교 내 주요 공간은 1일 1회 이상 소독
- ★ 일과 중 발열 검사
- ★ 외부인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 건강 확인 후 학교장 방문 허가)
-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학상 간 거리 확보, 휴식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집단행사 및 공동 교육 활동 자제)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장소에서 관리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학교급식 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운영합니다.

★ 급식실 출입 이전에 학생 발열 검사

★ 식사 시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시 대화 삼가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에는 매일 청소 소독 및 식당 환기 강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감염의심자 발생 시

학교는 학생의 감염이 의심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결과 음성이라도 격리통지서에 표시된 격리기간 동안(14일) 등교·출근 중지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자가격리 중에는

- ★ 외출을 금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전화 등) 사용,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 ★ 담임 선생님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 ★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온라인 학습 등 학습 환경 마련하기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는

하나. 자가격리 아이들이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해 주세요.

둘.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셋.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친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넷. 격리기간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섯. 격리가 끝난 후 등교 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교육부

코로나 사태에도 열일 하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4월 소식

난민영화제 출품작 시사회부터 입학 면접, 각종 지원사업 간담회까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기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여간의 활동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14호를 공유했다. 센터는 4월 한 달 동안 난민영화제 출품작 시사회부터 각종 지원연계 시범사업 간담회, 위탁형 대안학교 입학 면접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난민영화제 출품작 ‘Keep Rolling’ 시사회

4월 27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난민영화제 출품작 ‘Keep Rolling’ 영화 시사회가 진행됐다. 센터 소속 소공동체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한 작품으로 1년 6개월여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됐다. 사회에서 난민 2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과 현실, 행복과 고민, 우정과 가족애를 그렸다.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간담회

4월 23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개최된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자 및 실무자, 시범사업 컨설팅단,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발굴, 연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안산 단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자원을 상록구의 자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찾아가는 심리정서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 온라인 개학

에 따른 입학 면접 실시

4월 13일에는 꿈빛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 입학 면접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 일정에 대응한 것으로 면접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 전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질병 감염 예방에 힘썼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날 면접에 대해 “위탁교육을 신청한 이유 및 학업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주아동가족통합지원·양육코칭사업’ 간담회

4월 9일 센터는 세이브더칠드런 2개 기관과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난민가정양육코칭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3~7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상적인 아동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4월 22일에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양육코칭강사가 한 자리에 모여 이주아동가족통합지원·양육코칭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정아 코치는 “아동청소년기에 겪은 ‘이주’ 경험은 아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변화”라며 “따라서 부모로 하여금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코칭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예지 기자



“배제없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들이 만들자”

제11기 삶의질위원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회의 개최



제11기 삶의질위원회가 경기도의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제11기 삶의질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소회의를 개최했다.

삶의질위원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한 분과위원회로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민관협력기구다.

이번 회의는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공동소장이기도 한 유명화 삶의질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밖에 김진필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안기희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공동대표, 왕그나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대표, 유만희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이지안 경기도여성친화네트워크 용인시 대표가 삶의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이상명 사무처장과 이영란 간사가 함께했다.

이들 위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3월 23일 경기도의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발표 시점부터 4월 현재까지 관련된 주요 보도 및 이주민 인권단체의 활동내역을 공유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등에서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지

하고 지난 4월 1일 연대 모금 활동을 기획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했다.

경기도이주민인권단체연합에서는 4월 9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된 상황을 시민에 알리기 위해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 삶의질위원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함께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숫자와 현황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각 위원들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에서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거주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이주민 및 다문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담당 행정관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정책

을 검토하는 일종의 ‘학습공론장’ 설치를 결의했다. 또한 시민사회 내에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모임에서 생산한 결과물을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참여하는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21일 첫 발을 뗀다. 오는 5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수립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선포했으며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소식은 협의회 홈페이지(ggag21.or.kr)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어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결혼이민(F-6)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민 사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변경되어 왔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로 제한된다. 결혼이 아닌 ‘초청’ 횟수 제한이기에 이전에 외국인과 결혼했다라도 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문제되기에 ‘동일한’ 배우자를 여러 번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된다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나 배우자의 모국어, 제3국의 언어여도 무방하다.

셋째,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다만, 혼인을 이유로 간이귀화한 사람이라도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 또는 자녀양육인 경우라면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인 만큼 이 규정을 염두에 두어 결혼 후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22일부터는 가정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특정 성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작년에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Cách bảo lãnh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ợ/chồng để có thể nhập cảnh và định cư với chồng/vợ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phải đăng kí xin cấp visa kết hôn(F-6) tại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Thủ tục cần thiết để đăng kí cấp visa kết hôn bao gồm giấy đăng kí, giấy bảo lãnh, thư mời, sơ yếu lý lịch của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hộ khẩu của người mời, vv, mọi thông tin cụ thể về thủ tục pháp lý cần thiết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tại trang Hikorea. Các thủ tục cơ bản không có gì thay đổi nhưng tùy vào hoàn cảnh của từng gia đình mà một số hồ sơ sẽ có thể được yêu cầu bổ sung thêm. Chúng tôi sẽ giới thiệu cho các bạn một số những lưu ý sau đây.

Thứ nhất, trong năm 5, chỉ có thể bảo lãnh duy nhất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1 lần. Bộ tư pháp có quy định hạn chế số lần bảo lãnh, do đó dù đã đăng kí kết hôn nhưng trong vòng 5 năm nếu chưa từng bảo lãnh vợ/chồng của mình sang Hàn quốc thì không có vấn đề gì đáng lo ngại cả.. Ngoài ra quy định này chỉ có hiệu lực khi bảo lãnh ‘hai người khác nhau’, nên bảo lãnh cùng một người thì cũng không có vấn đề gì đáng lo ngại. Thứ hai, hai vợ chồng phải đảm bảo đầy đủ yếu tố có

thể giao tiếp được với nhau.. Thông thường, vợ/ch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phải học tiếng hàn và nhận chứng chỉ Topik từ cấp độ 1 trở lên hoặc học tiếng hàn tại các cơ quan đã được nhà nước chỉ định và đạt từ trình độ sơ cấp trở lên mới có thể đáp ứng được những yêu cầu khi đăng kí cấp visa kết hôn. Không nhất thiết là hai vợ chồng phải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có thể giao tiếp với nhau bằng tiếng anh hay tiếng mẹ đẻ của vợ/chồng mình hay ngôn ngữ thứ ba tùy vào hoàn cảnh của mỗi gia đình, miễn sao các bạn đạt được đầy đủ những quy định đã đặt ra trước đó.

Thứ ba, nếu là người nước đang sở hữu quốc tịch Hàn quốc và muốn bảo lãnh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ì phải sau 3 năm kể từ ngày sở hữu quốc tịch mới có thể bảo lãnh được. Tuy nhiên, nếu lý do có được quốc tịch mà liên quan đến việc chính bản thân mình là nạn nhân trong cuộc sống hôn nhân của mình hay có quyền nuôi dưỡng trẻ nhỏ tại Hàn quốc thì vẫn có thể bảo lãnh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ủa mình một cách bình thường mà không bị hạn chế nào cả. Gần đây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có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sau đó kết hôn vào bảo lãnh vợ/chồng ngày một tăng đáng kể do đó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này cũng ngày một khắt khe hơn để sau khi đăng kí kết hôn có thể bảo lãnh người bạn đời của mình một cách dễ dàng mà không gặp nhiều rào cản nhất. Cuối cùng đó chính là những người đang sở hữu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ững có lịch sử vi phạm những điều luật tại Hàn quốc như tội bạo lực gia đình, đánh đập trẻ nhỏ hay những tệ nạn về bạo lực giới tính đều sẽ không thể bảo lãnh được vợ/chồng mình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do nhà nước đặt ra. Điều luật này được đặt ra sau khi xảy ra vấn đề bạo lực gia đì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đặc biệt rất được chú ý hoan nghênh ngay sau khi ban hành.



我想邀请外国配偶。

为了让外国人与韩国人结婚后进入韩国，须通过海外外交使团签发结婚移民(F-6)签证(签证)。申请结婚移民签证所需的文件包括申请表，身份证明，邀请信，结婚移民的背景声明以及被邀请人的家庭关系登记册。基本文件基本保持不变，但特定的筛选标准已根据时代趋势进行了更改。这里有一些注意事项。

首先，外国配偶的邀请仅限于每5年一次。如果您从未邀请过您的配偶(即使您之前已与外国人结婚)，那么这也不成问题，因为“邀请”的数量并非婚姻。另外，可以多次邀请“同一”配偶。

其次，必须满足夫妻之间的沟通要求。外国配偶需参加1级或更高的韩语能力测试，或在指定的教育机构修读韩语课程。

第三，如果是因与韩国人结婚而获得韩国国籍的人，则必须在三年后能够邀请外国配偶。但是，由于结婚原因入籍，但获得国籍的原因是婚姻损害或抚养子女，这样的情况下则没有3年的限制。随着获得韩国国籍的外国人邀请外国配偶的人数将会增加，有必要牢记这一规则，并注意不要导致结婚后无法邀请配偶。

最后，从2020年8月22日起，具有家庭暴力，针对儿童和青少年的性犯罪或某些性犯罪的历史的人不能在一段时间内邀请外国配偶。随着针对移徙妇女的家庭暴力问题的出现，这些法规也于去年制定。

이은혜 변호사는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2월 이주여성과 아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코로나 대응 위한 취약계층 대상 자원 연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난민 가정에 방역키트 제공 등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일부 방역에 취약한 난민가정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한 달 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벌인 자원 연계 활동을 정리했다.

△안산시 거주 난민78가정 등에 코로나19 방역키트

안산시 거주 난민가정에 마스크, 손소독제, 알콜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전달했다. 나눔에 쓰인 긴급지원 마스크는 센터의 협력기관인 난민

인권네트워크를 통해 후원받았다. 보건용마스크 1000개, 천마스크 440개를 총 78가정 230인에게 개별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차례로 전달했으며 건강보험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이 지원 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가정에 생필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15가정에 주거 및 생계비지원 연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든 15가정에 주거 및 생계비 지원을 연계했다. 이들 가정에서는 “별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 점심 식사도 걱정이었다”고 고충을 전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들 가정에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침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긴급생계비지원을 연계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승미 센터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거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과 가정 양립을 응원하고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참여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사업에 신청한 관내 직장부모 커뮤니티 중 5곳을 선정해 모임 활동비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는 부모교육, 교육정보교환, 체험활동, 갈등관계회복 등 직장 또는 가정에서 오는 각종 고충을 해소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기획된 부모모임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성별, 연령 제한 없이 5인 이상 참여하는 직장부모 커뮤니티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지역, 동일 직장, 동종 업종 등에서 직장부모 커뮤니티를 운영을 희망하는 직장맘·대다·여성 모임 또는 단체 역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www.asww.or.kr)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asww3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031-495-5844·684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경기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 모집 안내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란?

-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 위탁 기간 동안의 학력이 인정되어 원적학교에 복귀해도 진급이나 졸업 가능



모집대상

-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 중도입국 청소년



학사운영

가. 학사기간 :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학기, 주5일, 32주 과정)

나. 편성 - 오전 (09:00 ~ 13:50) : 한국어 및 보통교과
- 오후 (14:00 ~ 17:00) : 대안교과(한국어 제외)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

가. 적응교육

- 기초학력(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및 한국어 능력 평가, 학교생활안내, 상호이해 및 자기목표 설정

나. 보통교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중 · 고등학교 기본 공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대안교과

- 한국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어휘 및 한국어 학습을 통해 공교육 적응력 향상
- 미술 미술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표현력 향상
- 표현 및 창작운동 극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 노작원에 생애이론, 원예, 목공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각 생태의 기능 이해
- 인간관계 집단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 개발

라.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활동 다각적 진로지도·자아탐색을 통해 자기이해 증진 및 진로의식 향상을 도모
- 봉사활동 나눔활동을 통한 개인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
- 자율활동 학생의 인지 · 정서적 사고활동 증대 및 자기 주도적인 기획 제공
- 동아리활동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소질 및 적성 개발 및 심미적 역량 함양



031 - 599 - 1770 (담당자)
031 - 599 - 1785 (진로개발팀장)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예비학교 학생 모집 안내



찾아가는 안녕! 학교란?

- 지역별로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 ·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 지역사회와 학교 및 민간 교육기관과 연대하여 ‘찾아가는 한국어학교’ 개설 운영
-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및 심리 · 정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전인적 성장 지원



모집대상

- 학교에 다니지 않는 9 ~ 24세 중도입국 청소년
- 입국초기 한국어 교육지원 및 한국 사회 적응, 심리 · 사회적으로 통합 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
- 공교육 진학을 원하거나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학사운영

가. 학사기간 : 4월부터 12월까지

나. 편성 : 주 4일 (화~금), 09:00 ~ 15:00 (종일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

다. 시간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09:10 ~ 12:00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12:10 ~ 13:00			점심식사(개인도시락 지참 및 구내식당 이용)			
13:00 ~ 15:00			문화활동	보충한국어	정서지원활동	

※ 교재비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용방법

가. 접 수

- 전화로 일정 확인 후 학생과 함께 내방상담, 입학원서 작성

나. 접수처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글로벌다문화센터 3층)

다. 교육장소

-안산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자들배기로 24-1)



031 - 599 - 1770 (담당자)
031 - 599 - 1785 (진로개발팀장)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시흥 다양한 가족에 식료품 및 의류 전달

시흥건가다가, 각 기관의 후원 물품 안 자리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 시흥건가다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센터로 연이었던 후원물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인터넷 카페 배라맘(배곧 바라기 맘)과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했다.

배라맘에서 라면 300개와 아동 의류 21벌을 후원했으며 복음자리에서는 면마스크와 손세정제 60세트,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두 160봉지,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유모차 25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카카오톡 미니 60개를 후원했다.

시흥건가다가는 지난 4월 9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 거주 가정을 방문해 물품 전달을 시작했으며 총 142가정에 식료품 및 의류를 전달할 계획이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시민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배라맘과 후원 기관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제, 심리, 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 가족과 다문화가족에게 각 가정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한 사랑나눔 시흥건가다가 긴급물품키트 전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4월 17일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40여 가구에 반찬 및 긴급물품 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물품에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한 반찬 도시락 및 다과, 긴급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컵라면 등이 포함됐다. 나눔 활동과 더불어 사례관리사를 현장에 함께 파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다각적 상담과 지원도 동시에 진행했다.

한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30일, 반찬 도시락 및 간식 500세트, 일회용 마스크 1,000장을 군서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전달한바 있다.

시흥시건강가다가의 연이은 나눔 행보에 대해 강은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 모든 이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힘내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시흥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액 확대

업체당 3천만원 이내, 5년간 2% 이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접수 중



시흥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

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 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

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대출이자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5월30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민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경영 악화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최대 100만원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예지 기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수와 출생년도 따라 신청, 국적 취득 안한 다문화가족은 조금 기다려야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발표 당시 경기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국 4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끌었다. 크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는 4월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5월 11일~17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따져 1990년에 태어났고 가구원이 3명이라면 4월 27일~5월 3일 기간의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3년에 태어났고 가구원이 2명이라면 5월 4일~10일 기간의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

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받는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방침이다. 5월 중순 이후부터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협은행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불가능하다.

내외국인 모두 재난소득 신청 이후 사용 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중국어 42면, 베트남어 44면, 일본어 39면>

최예지 기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자가격리 위반 방지 요청 다국어 공시

검역절차 강화, 자가격리 위반 강제출국 등 SNS 통해 적극 홍보 나서

지난 4월 26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 방지를 안내하는 홍보 자료를 다국어로 게재했다.

이날 센터에서 게시한 안내문에는 한국어 자료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총 6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포함되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을 위해 검역절차를 강화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비자 및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 강제 출국 조치 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1339)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 관내 외국인거주민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기관으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시 휴관한 가운데서도 출입국 관리업무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Thông báo phòng ngừa vi phạm việc tự cách ly

Chính phủ Hàn Quốc nhằm phát hiện sớm trường hợp bị nhiễm virus Corona 19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à đề phòng nhiễm bệnh cho người Hàn v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đang nâng cao thi hành thủ tục kiểm dịch và vậy mong mọi người hãy tích cực hợp tác.

Tất cả mọi người nhập cảnh xin chờ đợi ở địa điểm mà chính phủ Hàn Quốc riêng biệt chỉ định và làm theo chỉ thị của cơ quan quốc gia phòng dịch. Để nhận tư vấn gọi đến Trung tâm kiểm soát dịch bệnh (không có số khu vực 1339) hoặc Trung tâm tư vấn tổ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số khu vực 1345).

Trường hợp nếu không tuân theo chỉ thị của cơ quan kiểm dịch chỉ thị về việc tự cách ly, kiểm tra, điều trị vv thì sẽ bị hủy visa và kết quả xin phép cư trú, và có thể bị nhận lệnh cưỡng chế phải xuất cảnh và sau này có thể gặp bất lợi khi tái nhập cảnh nên cần lưu ý.

Announcement on Self-Quarantine Require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trengthened quarantine measures on entrants from overseas in order to detect COVID-19 cases early an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We ask for your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rules and regulations.

All travelers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from overseas are required to abide by the directions of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while remaining at the government-designated area. For inquiries, call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339 without area code) or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without area code).

Please note that failure to comply with health authority's orders such as self-quarantine, testing, treatment for the novel coronavirus will result in revocation of visa and permission of stay, and can lead to deportation and disadvantages in matters of re-entry into the ROK in the future.

指定場所隔離温馨提示

为了尽早发现境外输入性新冠肺炎病例，预防韩国国民和外籍人员感染传染病，大韩民国政府进一步加强入境检疫措施，请积极配合接受检疫程序。

凡入境来韩人员均需待在韩国政府指定场所里遵守防疫当局指示，如有疑问请致电1339（韩国疾病管理本部）或1345（韩国法务部外国人综合咨询中心）咨询。

若不听从防疫当局的居家隔离、检查及治疗等指示，所持签证、停留许可可将被取消，还将会被驱逐出境，并影响以后再次入境，敬请留意。

Gói nông sản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rẻ đang học cấ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Bắt đầu từ tháng 5 tới đây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rẻ đang học cấ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sẽ được nhận gói nông sản bao gồm hoa quả và rau

Ngoài ra, Đảng Dân chủ cho biết họ sẽ triển khai dự án hỗ trợ "gói nông sản" bao gồm rau quả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trẻ đang học cấ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từ tháng 5 và sẽ bắt đầu từ 8 khu đô thị lớn sau đó mở rộng đến cấp địa phương.

Theo quan chức của Đảng Dân chủ tại Hội đồng Chính phủ (cuộc họp của Đảng Dân chủ và Chính phủ) được tổ chức tại Hội đồng Quốc hội vào ngày 27/4 cho biết "Có rất nhiều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gần ngại tham gia vào các vấn đề thực tế như chuẩn bị ngân sách. Ông nói: "Chúng tôi sẽ xúc tiến từ nơi chuẩn bị sẵn sàng hỗ trợ chính sách mới này." Đại diện Lee nhấn mạnh: "Việc khai giảng đã bị hoãn lại do virus Corona 19, bữa ăn được cung cấp tại trường học cũng đã bị dừng hoạt động, các doanh nghiệp cung cấp thực phẩm và nông dân đang gặp khó khăn. Đảng và chính phủ sẽ cùng nhau tập hợp để có thể giúp ích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Chủ tịch ủy ban chính sách Jo Jeong Sik cho biết: "Nếu kế hoạch xúc tiến được xác nhận thông qua cuộc họp chính phủ, các hộ gia đình có con đang học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sẽ được cấp hỗ trợ là gói nông sản này bắt đầu từ tháng 5". "Phương thức cung cấp sẽ đa dạng hóa lên như vận chuyển hàng hóa, vận chuyển trực tiếp, vv Ông Jo

giải thích: "7 khu vực chưa xác nhận có tham gia dự án này hay không là Busan, Daegu Incheon Ulsan, Chungnam, Gyeongbuk Jeju, và dự kiến sẽ thảo luận về các dự án khác như hỗ trợ giáo dục và tài trợ do thiên tai cũng đang được xem xét."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kiêm Thủ tướng Bộ Giáo dục Yoo Eun Hye kêu gọi "Dự án hỗ trợ lần này sẽ giúp giảm gánh nặng cho các gia đình về thực phẩm và giúp ích cho sức khỏe của con cái" và "Mong rằng đảng sẽ tích cực hỗ trợ để có thể giúp đỡ một chút nào cho các nhà nông sản xuất".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Lâm nghiệp Kim Hyun Soo nói: "Bộ đã hỗ trợ 1,645 tấn bằng chiến dịch mua nông sản thân thiện với môi trường cho các tổ chức công cộng và việc cung cấp gói tự cách ly" và "Nếu mở rộng phương án xúc tiến có thể sẽ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các nhà kinh doanh nhỏ lẻ"

Giám đốc tỉnh Gyeonggi Lee Jae Myung nói: "Các sản phẩm nông nghiệp không lưu trữ phải được loại bỏ sau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Ông nói: "Tôi rất biết ơn vì Đảng đã tạo ra một khu vực bán hàng nông sản cùng với chính phủ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người dân."

Lee Jae Jung, giám đốc giáo dục tỉnh Gyeonggi, cho biết: "Vi bắt đầu khai giảng từ ngày 9 tháng trước, đây là một nhiệm vụ đặc biệt đối với cơ quan giáo dục, như thế nào để giải quyết việc ăn uống trong thời gian tới đây. Chúng tôi phải nghiên cứu thêm và tìm ra phương án phù hợp nhất có thể."

〈한글 기사 48면〉 강혜나 기자

학교밖청소년, 슬기로운 실내생활

학교밖 지원센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운영 중인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소장 이미영, 위탁법인 시흥YMCA)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발맞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4월 13일부터 온라인 화상 검정고시 수업과 e-학습멘토링 등의 온라인 수업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도 이 센터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1차 검정고시가 2주 연기된 5월 23일에 치러짐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며 가정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오전, 오후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편성했다.

e-학습멘토링은 총 32명의 멘토와 35명의 학교 밖 청소년 멘티가 연결되어 필요한 학습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하고 멘토-멘티 간 다양한 화상플랫폼을 활용해 검정고시 시험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 등의 지원을 받아 태블릿 PC도 대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능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4월 20~24일 한 주간 자립준비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자립준비 클래스는 체력관리, 취미생활, 식생활 관리, 정리정돈 노력 등 총 4개의 일상생활 분야를 정해 하루에 한번씩 4컷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했으며,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지식(GSEEK, <http://www.gseek.kr>)을 활용한 각종 온라인 영상을 통해 자기계발, 취미생활, 자격과정 등 관련 내용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꾸준한 자기성장을 독려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센터 유입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문화체험활동과 1:1 온라인 스포츠문화활동(문화예술 온라인 수강), 영화감상, 독서 등 실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절차는 센터의 카카오톡 러스친구 및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이메일 (shyc1388@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도 문의사항은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404-1318) 또는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지역화폐 상품권형 5만 시루 발행

연맹 법정화폐와 동일한 권종 구비에

시흥시에서 1천, 5천, 1만 시루에 이어 5만 시루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천, 5천, 1만 시루에 이어 현행 법정화폐와 동일한 권종을 구비, 활용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흥화폐 5만 시루는 지난해 민관 협치기구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해 신규 발행이 결정되고 지난해 말 시민공모를 통해 권종 디자인이 확정됐다. 출시 예정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1차 발행은 총 40억 원 규모이다. 5만 시루의 디자인은 '300년 간척의 역사, 호조벌'을 주제로 한 작품이 최종 당선됐다. 호조벌은 갯

벌을 다져 농토를 일군 과거와 젊고 역동적인 현재의 시흥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고객권인 5만 시루의 이미지로 적합했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시흥화폐 시루는 상품권형 시루와 모바일시루 두 종류의 결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현재 모바일시루 사용이 상품권형 시루를 크게 뛰어넘고 있지만 모바일 사용 환경에 취약한 연령과 계층의 이용 편의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5만 시루 발행의 이유 중 하나라고 시흥시청은 밝혔다. 최예지 기자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The First Step Towards Building Happy Workplaces

Seeking assistance through an external organization when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Type	Method	Details
Non-legal assistance	Appealing to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Demanding the employer to tak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sexual harassment (disciplining the perpetrator, resolving any disadvantages suffered by the victim, etc.)
	Seeking assistance from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eeking assistance for the unfair dismissal, suspension or transfer of a victim(or perpetrator) of sexual harassment, etc.
	Appeal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al measures to deal with the perpetrator and persons responsible, compensation, etc.
Legal assistance	Filing an action/complaint with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Demanding the employer to tak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sexual harassment (resolving any disadvantages suffered by the victim or a lack of action taken against the perpetrator)
	Filing an action/complaint with the Prosecutors' Office	Seeking punishment for illegal actions that are liable for criminal punishment (sexual violence or violations of the Criminal Act or Act on The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
	Filing a civil suit in court	Filing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sexual harassment

Response of Sexual Harassment Perpetrators and Things to be Aware Of

Things for Perpetrators to Keep in Mind When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 Recognize that the question of intent is irrelevant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behavior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 It is best to refrain from any words or actions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sexual harassment at all times
- If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it is better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and state your position while seeking a solution rather than deny any wrongdoing from the outset

- If subject to intervention, accept the decision and make an effort to avoid the offending behavior while fulfilling any requests from the victim
- If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ccept the penalty after making sure it is proportionate to the severity of the offending behavior and the period of time over which such behavior occurred

Duty of Employers to Conduct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The employer shall conduct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very year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create conditions under which his/her workers may work 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Article 13, subsection 1 of the Act)
 - For dispatched workers,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shall be conducted by the employer he/she is currently working for.
- Each employer shall conduct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t least once a year. (Article 3, subsection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An employer of either of the following businesses may conduct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by posting or distributing educational materials or promotional materials so that workers may know the detail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1. A business employing less than ten full time workers; 2. A business for which all employers and workers consist of one gender, male or female (Article 3, subsection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Preventive edu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Article 3, subsection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The handling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measures taken upon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t the workplace
 - Grievance counseling and procedures for helping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t the workplace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preventive education may be provided through worker training, morning meetings, conferences, or cyber education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Article 3, subsection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confirm whether the details of the education have been appropriately conveyed to workers because educational materials have simply been distributed or posted, electronic mail has been sent or such materials have been posted on a bulletin board, preventive education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provided.

Manuals (including educational guidelines) and videos on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re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Creating Guidelines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An employer shall prepar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guidelines in order to prevent and prohibit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nd place such guidelines in a location where they can be freely accessed by all employees in the workplace. (Article 5, subsection 2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guideline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Article 5, subsection 2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 Matters necessary for counseling and handling grievanc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Procedures for protecting victims when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has occurred
 - Disciplinary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dealing with perpetrators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eventing and prohibi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Refer to the guidelines on writ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nd response manuals

Taking Step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by Clients or Customers

- An employer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by clients or customers.

Where any person closely related to duties, such as a client, causes a worker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by sexual words or actions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nd such worker requests resolution of the grievance, his/her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his/her place of work, redeployment, or granting a paid leave of absence. (Article 14-2, subsection 1 of the Act)
- An employer may not take any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n employee who has become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No employer shall dismiss or take any other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 worker on account of his/her claim that he/she suffered harm caused by sexual harassment from a client, or refusal to submit

Duty of Employers to Take Measures When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Occurs

- Where an employer receives a report or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he/she shall immediately conduct an investigation to verify whether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In such cases, the employ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 worker who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lest he/she should feel sexual shame in the course of any investigation. (Article 14, subsection 2 of the Act)
- Whe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 harassed worker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an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harassed worker works or issuing an order to have the harassed worker take a paid leave of absence. In such cases, no employer shall take measures against the wishes of the harassed worker. (Article 14, subsection 3 of the Act)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Suporta at Pangangalaga sa kalusugan ng Ina
at bagong silang na sanggol

Hea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 (031-310-5941)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Pamilya na nakatakdang manganak sa taong 2020
- **Pamantayan sa Pagpili** : Mga buntis na nakarehistro bilang residente sa lugar na nasasakupan (iba-ibang suporta batay sa pinakahuling kontribusyon sa health insurance simula ng petsa ng aplikasyon)
- **Panahon ng Aplikasyon** : 40 araw bago ang nakatakdang kapanganakan hanggang 30 araw matapos makapanganak
- **Mga suporta** : Pagbibigay ng serbisyong pangkalusugan para sa mga buntis at bagong silang na sanggol sa pamamagitan ng pagbisita sa kanilang tahan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Pagbisita sa health center o pag-aapply online.
- **Proseso ng Suporta** : Magparehistro sa health center → Pagpirma sa kasunduan → Paggamit ng Voucher



Suporta at Pinansyal na tulong ng pamahalaan
para sa kapanganakan

Hea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50)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 (031-310-5921)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 Magulang ng bagong silang na sanggol na nakarehistro bilang residente ng Siheung City na hindi bababa sa 180 na araw.
 - Ang mga residente ng Siheung City na wala pang 180 na araw ay kinakailangan munang mag hintay ng 180 na araw upang makapagparehistro. (Dapat na mas maaga ang rehistrasyon ng pagiging residente ng mga magulang kaysa ng kapanganakan)
- **Panahon ng Aplikasyon** : Buong Taon
- **Mga Suporta** : 500,000won para sa unang anak, 1,000,000won para sa ikalawang anak, 2,000,000won para sa ikatlong anak at 10,000,000won para sa ikaapat na anak.
- **Paraan ng Aplikasyon** : Magpahistro s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kasabay sa pagpaparehistro ng kapanganakan ng bata.
- **Mga kinakailangang Dokumento** : ID card, Kopya ng bankbook ng ama/ina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Suporta para sa Namamanang
pagka pipi at hearing aid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031-310-5838)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aring Maparehistro** : Pamilya na sakop ng hurisdiksyon.
- **Pamantayan sa Pagpili**
 - Mga sambahayan na my 2 o higit pang bilang ng mga anak na mas mababa ang kita sa 180% ng pangkaraniwang kita o walang permanenteng kita.
 - Ang unang ipinanganak na kambal na kinikilala bilang multi-anak
- **Mga Suporta** : Pinansyal na tulong sa pag sasagawa ng Neonatal Hearing Screening (5,000won~25,000won) ※ Ang health insurance ay maaaring mailapat lamang sa loob ng 28 araw pagkatapos ng kapanganakan
- **Paraan ng Aplikasyon**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a inyong lugar

Suporta sa Nutrisyon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031-310-5842)

- **Mga Maaring Magparehistro** : Pamilya na ang pamantayang kita ay hindi tataas sa 80%
- Buntis, Bagong Panganak Nagpapasuso Bagong Silang, Mga bata (hindi hihigit sa 66 na buwan)
- Isa sa mga kadahilanan ng panganib sa nutrisyon (Anemiya, hindi pag tangkad, mababang timbang, hindi magandang nutrisyon)
- **Mga Suporta** : Ang pagbibigay ng 6 na iba't-ibang balot ng pagkain, edukasyon at pagpapayo, pagsusuri at pamamahala ng nutrisyo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health center sa inyong lugar
- **Mga Kailangang Dokumento** :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kumpirmasyon ng pagbabayad ng premium health insurance, atbp.

Suportang lampin at pormulang gatas
para sa mga pamilya na may mababang kita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Pamilya na may anak na hindi lalampas sa 2 taong gulang
- **Pamantayan sa pagpili** : Pangunahing seguridad sa buhay, Mahirap na Pamilya, Pamilya na may iisang magulang, Ang mga taong may kapansanan na ang kita ay mas mababa pa sa 80% ng pangunahing sweldo, O ang mga sambahayan na may dalawa o higit pang mga bata na may pamantayang kita na hindi lalampas sa 80% ng pangunahinh sweldo
- **Panahon ng Aplikasyon** : Kung nagpaparehistro sa araw bago ang bata ay mag dalawang taong gulang, ang petsa ng aplikasyon ang magiging pamantayan para sa suporta.
- **Mga Suporta** : Bibigyan ng National happiness card Voucher Points Payment
- **Paraan ng Aplikasyon**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t Health Center sa inyong lugar

4

Pagbubuntis · Panganganak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Suporta sa pagpapalano
ng pagbubuntis

Hea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Bagong Kasal, magkasintahang nakatakdang magpakasal at mga mag-asawang nagpaplanong magkaanak.
- **Mga Suporta** : Mga pagsusuri para sa Kalusugan ng mga Mag-asawa na nag pa planong magbuntis
 - Babae : Rubella Antibodies, Hepatitis Antibodies, Anemia, Blood Types, Liver Function, Blood Sugar, Urine Sugar, Urinary Protein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uberculosis (X-ray)
 - Lalake : Hepatitis Antibodies, Anemia, Blood Types, Liver Function, Blood Sugar, Urine Sugar, Urinary Protei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uberculosis (X-ray)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Health Center sa inyong lugar



Suporta para sa pangunahing pagsusuri
para sa mga buntis

Hea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buntis na kababaihan mula sa Siheung City
- **Kailan Maaaring Magparehistro** : Simula sa pag pa planong magbuntis hanggang sa 12 linggo ng pagbubuntis
- **Mga Suporta** : Pagsusuri sa dugo (hepatitis B antibody, anemia, blood sugar, syphilis, AIDS, etc.), Pagsusuri sa lhi (urine glucose, urine protei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Health Center sa inyong lugar

Suporta pinansyal para sa
Folic Acid ng buntis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37)
Jeongwang Health Branch (031-310-5941)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buntis na naninirahan sa Siheung City
- **Kailan Maaaring Magparehistro** : Simula 16 linggo ng pag bubuntis hanggang 3buwan pagkatapos manganak
- **Mga Suporta** : Pagbabayad para sa Folic Acid hanggang ika-6 na buwan na pagbubuntis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Health Center sa inyong lugar

Suporta para sa maternal na
programang pangkalusugan

Health Policy Division
Local Health Teams (031-310-5837)

Program	Iskedyul	Bilang ng tao	Nilalaman
Edukasyon tungkol sa Prenatal Five Senses	Marso, Abril, Mayo, Hunyo, Setyembre, Oktubre, Nobyembre Tuwing Hwebes 14:00-16:00	15	Unang linggo) Pagbasa, Larawan ng Prenatal (ikalawang linggo) Sining (ikatlong linggo) Bulaklak/Kaligrahiya / Paggagawa ng baruan
Edukasyon tungkol sa Paghahanda sa Panganganak Maligayang Ina	Marso, Hunyo, Setyembre Tuwing Martes 14:00-16:00	15	Unang linggo) Prenatal education, emosyon ng ina (ikalawang linggo) Pagpapasuso, Pag-aalaga ng bagong silang na sanggol (ikatlong linggo) Paraan ng Panganganak, puerperium
Klinika Pagpapasuso	Marso, Abril, Mayo, Hunyo, Setyembre, Oktubre, Nobyembre Tuwing Ikalawang Hwebes 10:00-11:30	7	Pagsasanay ng Pag papasuso Pagmamasah ng Suso pagkatapos manganak
SAFE yoga	Abril, Mayo, Oktubre Tuwing Hwebes 14:00-15:00	10	Unang linggo) Tamang paghinga, Ehersisyo para sa Balakang(ikalawang linggo) Ulo, Balikat, Tamang balanse ng balakang(ikatlong linggo) Sakit sa bandang ibaba ng likod, ehersisyo ang pagpapalakas ng kalamnan sa tiyan

※ Bayad: Libre / First-come-first-served basis (15 mga mag-aaral)



Pag-aaral tungkol sa panganganak at
pag-aalaga ng bata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16)

- **Mga Maaring Magparehistro** : Kababaihang nasa ika-16 na linggo ng pagbubuntis, mag-asawa, buntis na kababaihan mula sa multikultural na pamilya, magkasintahang nakatakdang magpakasal
- **Nilalaman ng Suporta**
 - Araw at Oras: Mula sa Buwan ng Marso hanggang Nobyembre (Kababaihang buntis-2 semester/4 na pag tuturo bawat semester, Mga Lolo at Lola -1 semester/3 pagtuturo)
 - Lugar : Jeongwang Health Center Health Education Room (2F)
 - Nilalaman : Edukasyon para sa mga magulang at mga lola tungkol sa pagbubuntis, panganganak at pag-aalaga ng sanggol
 - Paraan ng paggamit : Paunang pagpapareserba depende sa klasiplikasyon (buntis, mga lolo at lola /30 tao)

Pagbubuntis · Panganganak

자녀 등교, 5월 초에 시작될까

다문화가족 교육정보, 국무총리 언급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교가 늦어지면서 자녀와 함께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의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소망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략적인 등교 시기를 공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7일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시기와 방법을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면서 “특히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학생들의 등교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결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할지, 급식위생은 어떻게 확보할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해 늦어도 5월 초 등교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고3과 중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말 등 연휴에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공동체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어디를 가시든지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연휴는 우리 사회가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병행할 역량이 있는지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어 29면, 베트남어 23면, 러시아어 28면, 일본어 27면> 이지은 기자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나서

시흥시돌봄센터, 긴급돌봄체계 유지



시흥시(시장 임병택) 아이누리 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나눔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월부터 현재까지 돌봄센터와 돌봄나눔터는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돌봄기관에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학습에 참여

하도록 돕고, 온라인 학습 종료 후에도 19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센터를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도 꼼꼼히 실시하고 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및 돌봄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상시돌봄을 운영하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 급·간식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Семья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предоставят помощь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трудящихся в размере до 3млн. кор. вон, а так же 700.000 вон в виде дет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выплатить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виде помощи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трудящихся семья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и по 700.000 вон дет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каждого ребёнка.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дохода, семьям, с доходом и имуществом ниже определённой суммы, выплатят помощь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трудящихся в размере рав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тем самым поощряя труд. Детское пособи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детям в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рождённым после 2 января 2001 года) как помощь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Пособие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трудящихся и детский капитал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супругам, имеющих иждивенцев. Такие семья будут разделены на семья с одним кормильцем и семья, в которых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а.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семья и семья с одним кормильцем общая зарплата в которых менее 3 млн. вон; семья в которых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а общая сумма дохода в которых более 3 млн. вон.

Пособия (трудовое и детско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мья из вышеуказанных, общий годовой доход (зарплата, доход от бизнеса, религиозный) в которых меньш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В случае трудового пособия, сумма в расчёте на одну семью составляет от 40.000 до 20 млн вон валового дохода, семья с одним кормильцем от 40.000 до 30 млн вон, семья в которых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а от 6 млн до 40 млн вон. Стандар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етского пособия составляет от 40.000 до 40 млн вон в семьях с одним кормильцем, и от 6 млн до 40 млн вон в семьях в которых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а.

Кроме тог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июня 2019 года общая сумма имущества (дом, земля, здания и депозиты) принадлежащие всем членам семьи, не должна составлять более 200 млн вон. Сумма долга не выч

итается от суммы имущества, и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собие как к трудовому так и дет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проводит финансовые проверки членов семьи.

Сумма выплат составляет от 30.000 до 1,5 млн. вон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емей, от 30 000 до 2,6 млн. вон для семей с одним кормильцем и от 30.000 до 3 млн. вон для семейств в которых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а. Сумма детского пособия варьируется от 500.000 до 700.000 вон на ребёнка. Если общая сумма имущества членов семьи составляет от 140 до 200 млн вон, т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50% пособия. Есл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мае, то пособие получите в августе.

Исходя из доходов прошлого 2019 года 5.680.000 сем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трудовое или детское пособие.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выбирает полугодовую платёжную систему, кроме 2.030.000 семей, которые уже подали заявки, в мае 3.650.000 семьи будут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ы о приёме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й.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отправила уведомление семьям. Однако, даже если уведомление не получено, не обходим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поставить доход и сумму имущества с указанными и проверить положено ли семье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собие.

В случае утер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сообщения или не зна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номера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на веб-сайте Hometax или в Sontax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а)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данные.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ввести номер счета и номер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на имя подающего зая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екларировать общий подоходный налог ваш и супруга(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заявления на пособие можно задать обратившись в специальный колл-центр мес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нспекции. <한글 기사 36면>



다문화 취약계층 15세대에 후원품 전달
부천다가, '건이강이봉사단' 지원물품 15세대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으로부터 후원품을 전달받았다.

이에 부천다가는 10kg 쌀 15포대와 건강관리키트 15개를 다문화취약계층 15세대에 각각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4월 23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름인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백운영 센터장과 윤석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외 6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7년 개소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내의 개인, 기업,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지원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을 위한 가교 역할에 힘쓰고 있다.

백운영 센터장은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같은 다문화가족이 부천시에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사회통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코로나 대응 아동돌봄 공백 메꿔 부천시 긴급 돌봄아동 지원

부천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도시락 배달,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 관내 62개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원함에 따라 센터 종사자들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근무하여 5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결식 우려 아동 380여 명에게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했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결식 우려 아동 1,800여 명에게는 아동 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천시와 지역아동센터 간 비상 연락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이용 아동 대상 1일 2회 발열 체크, 시설 소독 등 환경 정비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지원 등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컴퓨터가 없어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아동에게도 센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아동센터가 휴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까지 해주시는 센터장과 종사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부천시, 청소년 온라인 화상상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서비스

부천시는 4월 14일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게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상담이란 심리상담 전문가와 실시간 온라인 1: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는 첫 주에만 40여명의 청소년과 보호자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해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겪게 되는 부모?자녀 갈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zzang1318.or.kr/bucheon/>)를 참조하거나 센터 대표번호(032-325-3002)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2020년 5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근로자의 날	2 - 베트남 결혼이민자 나눔봉사 자조모임
3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4 - 어린이 날	5 - 어린이 날	6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 한국어교육 강사 간담회	7 - 결혼이민자 베트남 자조모임 진행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8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9 - 이주언어교실 강사 간담회
10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11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12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	13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14 - 결혼이민자 베트남 자조모임 진행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15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16 - 베트남 결혼이민자 나눔봉사 자조모임 - 이주언어교실 아동 배치평가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 미술치료사 간담회
17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18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19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말하기반(특별반) - 손뜨개 자조모임(1기)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	20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 손뜨개 자조모임(2기)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1 - 결혼이민자 베트남 자조모임 진행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2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23 - 이주언어교실 중국어반 기초(A,B) - 이주언어교실 중국어반 심화(A,B) - 이주언어교실 베트남어반(A,B) - 이주언어교실 일본어반
24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5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6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말하기반(특별반) - 손뜨개 자조모임(1기)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	27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 말하기반(특별반) - 손뜨개 자조모임(2기) - 상상속의 맛있는 그림책 들려주기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8 - 결혼이민자 베트남 자조모임 진행 - 한국어교육 3단계 - 중도입국자녀반/토박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 이주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2그룹) - 다문화가족 미술치료사업	29 - 한국어교육 1,2,4단계 - 중도입국자녀반	30 - 이주언어교실 중국어반 기초(A,B) - 이주언어교실 중국어반 심화(A,B) - 이주언어교실 베트남어반(A,B) - 이주언어교실 일본어반
31 - 인권정수정 향상교육						● 상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발기 및 상담 / 교육 * 결혼이민자문화면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족 영문교육사업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센터 정절 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또 이웃 다문화가족과 어떤 언어로 대화하나요?”

<기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가 알려주는 이중언어교육 노하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임뢰라고 합니다. 저는 2001년 8월 21일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첫 아이를 가져 다음 해 8월 큰 딸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어에 서툴었는데 남편은 아이에게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미숙한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드라마를 보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덕에 아이가 한국어 웅알이를 시작할 즈음에는 저도 한국어로 기본적인 단어와 일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부터 친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오빠의 딸이 저의 큰딸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또래인 두 아이가 만나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친정에 머무르는 1달 동안 딸은 사촌언니에게 중국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고 남편도 이중언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이를 낳으러 친정에 갔고 거기서 4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미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던 큰딸은 중국에 도착한지 일주일 만에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어를 구사할 때 엄마로서 참 신기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 혼자 힘으로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큰아이가 중국어를 잊지 않도록 중국 출신 가정을 모아 1주일에 한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중국어 환경 속에서 놀았습니다. 평범한 모임이었지만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중국어와 한국어를 넘

나들던 딸과 저는 2010년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에서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말하기, 딸은 중국어 말하기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중언어코치로서 성공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노하우를 공유할까 합니다.

첫째, 이중언어 교육은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만12세까지입니다. 이때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은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복적이고 꾸준한 실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한 방향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말하는 것에 부모가 반응해주고 따라해주는 식의 소통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 집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히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즐겁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아이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즐거움과 흥미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오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언어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추천할 활동으로는 사람의 표정 그리기, 이중언어로 된 동요와 찬트(chant) 배우기, 이중언어 단어카드 놀이 등 있습니다.

넷째, 이중언어 교육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한 이중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발음 연습을 할 때 한국어는 아빠와 연습하고 엄마의 모국어는 엄마와 연습하여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익히도록 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exposure)과 필요(need)입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가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임뢰 중국어 이중언어코치

Kênh thông tin giáo dục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háng 5 tới các trẻ có thể bắt đầu đến trường được hay không?

Nhiều gia đình đang gặp nhiều khó khăn trong việc sinh hoạt cùng với trẻ tại nhà do đại dịch Corona nên các trẻ phải đi học muộn. Vì lý do này, mong muốn của các bậc phụ huynh muốn con cái đến trường ngày càng lớn, chính phủ đã công bố thời gian dự định bắt đầu có thể đi học.

Thủ tướng Jeong Se Gyun ngày 27/4 đã chỉ thị: "Bộ Giáo dục nên tiến hành các thủ tục để cho người dân biết thời gian và phương pháp đi học muộn nhất là vào đầu tháng 5". Đặc biệt, phải tập trung thu thập ý kiến về phương án cho các học sinh trung học phổ thông và trung học cơ sở trước kỳ

thi tuyển sinh".

Thủ tướng Jeong đã chủ trì một cuộc họp của Cơ quan đối phó với dịch bệnh virus chủng mới Corona 19 mới tại tòa nhà chính phủ Seoul vào buổi sáng ngày hôm đó, ông phát biểu: "Sự an toàn của trẻ em là điều rất quan trọng, nhưng chúng không thể tiếp tục giam giữ học sinh ở nhà được".

Trước đó,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gia hạn khoảng cách xã hội theo hình thức giảm nhẹ cho đến ngày 5 tháng 5. Do đó, các học sinh hiện đang tiến hành các lớp học trực tuyến cũng đang xem xét việc có được đi học hay không. Thủ tướng Jeong nói rằng:

"Giống như khi quyết định khai giảng online, suy nghĩ của giới giáo dục, cộng đồng xã hội và phụ huynh cũng đóng góp một phần rất quan trọng" và "Không có nhiều thời gian để quyết định thực hiện việc giữ khoảng cách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Ông còn cho biết thêm: "Nếu được đến trường, có rất nhiều thứ cần phải chuẩn bị ở trường. Các giáo viên nhấn mạnh rằng "Không chỉ có một hai chi tiết không thể dễ dàng bỏ qua việc học tập và đeo khẩu trang, giữ khoảng cách vật lý, vệ sinh bữa ăn như thế nào, vv Chúng ta cần phải có ít nhất một tuần là thời gian cần để chuẩn bị cho việc đến trường".

Thủ tướng Jeong đã chỉ thị kiểm tra phương án đi học lần lượt muộn nhất là vào đầu tháng 5 cho học sinh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Ngoài ra, "Có nhiều người đang đi dã ngoại vào các thời điểm như cuối tuần, và tất cả mọi người cũng đã biết rõ cách bảo vệ an toàn cho bản thân mình cũng như cho cộng đồng. Dù bạn đi đâu, hãy tuân thủ nghiêm ngặt các quy định để phòng tránh dịch bệnh. "Ngày nghỉ lễ sẽ trở thành một thước đo để đánh giá xã hội của chúng ta có khả năng hòa hợp dịch bệnh và cuộc sống hàng ngày hay không".

<한글 기사 21면> 강혜나 기자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ไปยังครัวเรือนมีรายได้ต่ำถึง 3,000,000 วอน•มอบ 700,000 วอนให้กับเด็กฯ

รัฐบาลสนับสนุนให้ครัวเรือน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ำงานมีรายได้ต่ำถึง 3 ล้านวอน,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เด็กจะได้รับเงิน 700,000 วอนต่อเด็กหนึ่งคนเป็นชาวดี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ที่กำลั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กับโคโรนา

ในส่วน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จะมีการจ่ายเงินให้กั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และทรัพย์สินน้อยกว่าจำนวนที่กำหนดเป็นระบบสวัสดิการที่รองรับรายได้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เด็กจะจ่ายให้กับ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 18 ปี (เกิดในหรือหลังวันที่ 2 มกราคม 2544)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เลี้ยงเด็ก

คู่สมรสที่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เด็ก,ผู้ปกครองอุปการบุตรคนเดียว,ผู้ที่สร้างรายได้คนเดียว,ทั้งคู่ที่มีรายได้ไม่เพียงพอครอบครัวผู้ที่สร้างรายได้คนเดียว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ครัวเรือนเดียวที่มีเงินเดือนน้อยกว่า 3 ล้านวอน,ครอบครัว

ที่ทำงานทั้งคู่ที่มีรายได้ที่มีเงินเดือนน้อยกว่า 3 ล้านวอนทั้งคู่ได้รับเงินกับงานหรืออะไรทำนองนั้น

ในปี 2562 หากคุณมีรายได้รายรับและรายได้จากธุรกิจ,หากคุณมีรายได้ทางศาสนาและรายได้รวมประจำปีของ คู่น้อยกว่าจำนวนเงินมาตรฐานคุณอาจมีสิทธิ์ได้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บุตร

ในกรณี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จำนวนตามครัวเรือนเดียวน้อยกว่า 40000วอนถึง 20 ล้านวอนในรายได้ที่รวม,ครอบครัว

ที่ทำงานเพียงคนเดียวอยู่ระหว่าง40000วอนถึง 30 ล้านวอน,ครอบครัวที่ทำงานทั้งคู่และมีรายได้น้อยกว่า 6 ล้าน

ถึง 36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สนับสนุนบุตรที่ได้รับน้อยกว่า 4000วอนถึง 40 ล้านวอ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ได้รับ,ครอบครัว ที่มีรายได้ทั้งคู่ที่ได้รับน้อยกว่า 6 ล้านถึง 40 ล้าน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รายได้และทรัพย์สินตั้งแต่ปี2562 วันที่ 1 มิถุนายนจำนวนทรัพย์สินทั้งหมดเช่นบ้าน,ที่ดิน,อาคารและเงินฝากของสมาชิกทุกคนในครัวเรือนจะต้องน้อยกว่า 200 ล้านวอนในเวลานี้หนี้สินจะไม่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ทรัพย์สิน

และเมื่อยื่นขอ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เด็กทาง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สมาชิกในครัวเรือนเพื่อตรวจสอบ.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ที่จะได้รับคือ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เลี้ยงบุตรคนเดียว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จะได้รับ 30,000วอนถึง 1.5 ล้านวอน,สำหรับที่ทำงานคนเดียว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ครอบครัวจะได้รับ30,000วอนถึง 2.6 ล้านวอน, ครอบครัวที่ทำงานอยู่ทั้งคู่จะได้รับ 30,000วอนถึง 3 ล้านวอน,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เด็กจะได้รับตั้งแต่ 500,000วอนถึง 700,000 วอนต่อเด็กหนึ่งคนหากจำนวน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งหมดรายได้อ้อยู่ระหว่าง 140 ล้านถึง 200 ล้านวอนจะได้รับเพียง 50% เริ่มสมัครตั้งแต่วันที่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จะชำระใน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

ในปี 2562 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จำนวนครัวเรือนทั้งหมด 5.56 ล้านครัวเรือนมีสิทธิ์ได้รับบริการภาษีแห่งชาติเลือกระบบ

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ครั้งปีมีคำแนะนำให้สมัคร 365 ล้านครัวเรือน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ยกเว้น 2.3 ล้านครัวเรือนที่สมัคร

ไปแล้ว

สรรพากรบริการส่งหนังสือแจ้งไปยังบุคคล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คุณอาจยังคงมีสิทธิ์ได้รับอาจะมีสิทธิ์ไปสมัครเพื่อที่เขาหรือเธอ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ด้วยตัวเอ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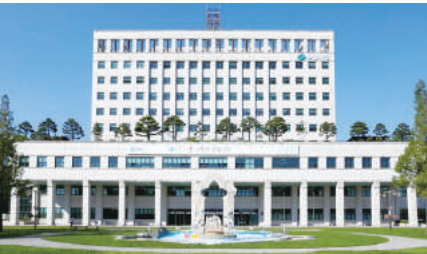
หากคุณไม่รู้จัก "บุคคลที่ได้รับแจ้ง" หรือ "หมายเลขการรับรองความถูกต้องส่วนบุคคล" เนื่องจากคุณสูญเสียหรือ

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ประกาศคุณ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ที่เว็บไซต์HometaxหรือSontax (แอปพลิเคชันสมาร์ทโฟน)เมื่อสมัครคุณจะต้องป้อนหมายเลขบัญชีและ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ของคุณและหากคุณหรือคู่สมรสมีหน้าที่ประกาศภาษีรายได้ที่ครอบคลุมคุณ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ก่อน

หากคุณมีคำถามใดๆเกี่ยวกับแอปพลิเคชันสำห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คุณ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ศูนย์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ของในพื้นที่ <한글 기사 36면> 이아리 기자

'사랑의 그린 PC' 신청하세요!

7일부터 열을 간 접수, 6월 중 보금



부천시는 코로나19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랑의 그린 PC’는 사용 가능 연한인 5년이 지나 불용 처리한 PC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 취약계층이나 관련 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선발한 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이 있는 정보화 교육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june81@korea.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단체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5월 27일 선정자에게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6월 중 직접 방문해 컴퓨터를 설치한 후 1년간 무상 A/S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희망자에게는 지역 내 컴퓨터 학원과 연계해 정보화 교육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정보격차를 더욱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 정보통신과(032-625-241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예지 기자

育有小学，初中和高中的多元文化家庭可获得农产品包装 소중고 자녀 둔 다문화가족 농산물 꾸러미 받는다

预计从五月起，有孩子上小学和初中的多元文化家庭将收到一包包含蔬菜和水果的农产品。

此外，民主党和政府宣布，将从五月份开始实施的支持“农产品包装计划”的项目，该计划将在八个地区的政府中开始实施，其中包括中小学的蔬菜和水果。

民主党一位官员说：“京畿道和首尔等八个地方政府参加了直接向学生供应新鲜农产品的计划。“许多地方政府不愿参与实际问题，例如预算编制。我们将从准备好的地方开始推进。”

“由于受科罗娜影响 学校推迟开学，被暂停的食品服务提供商和农民正在苦苦挣扎。”党和政府齐心协力，聚集了智慧，以帮助包装企业和个人。”

“如果通过双方协议确认了实施计划，则该包装将从5月开始提供给基本和中年家庭。”供应方法不同于现货交付，在线优惠券交付以及专用农产品和水产品优惠券等供应方法。”

조정식政策委员长说：“目前尚有七个地区不确定是否参与该项目，其中包括釜山，大邱，仁川，蔚山和济州忠清北道。我们将在未来讨论不参与的地方政府。

教育部长兼教育部长于恩惠说：“这项支持项目将减轻家庭负担和父母的食物，并有助于儿童的健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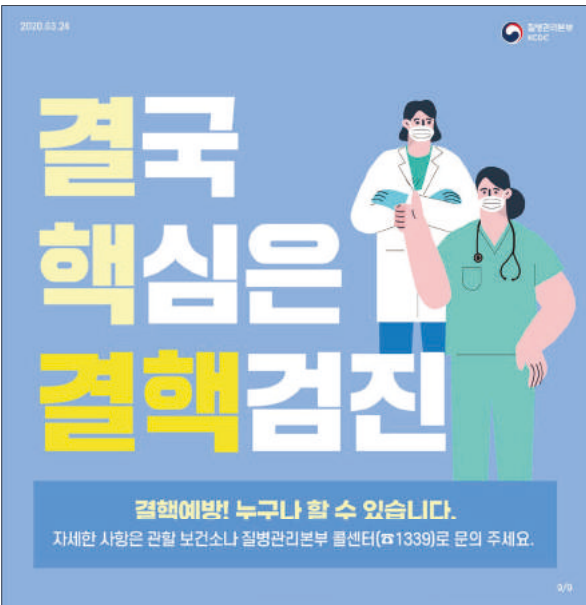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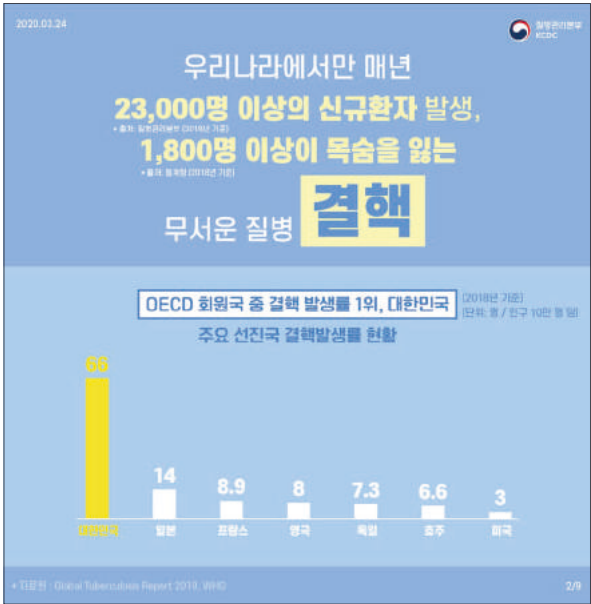
김현수农产食品部长官说：“通过三项紧急措施，农业和食品部通过公共机构的环保农产品购买活动和自给自足包装的供应，支持了1645吨的运输。

李在明知事说：“一定时期以后，必须处置不可储存的农产品。他说：“我们很高兴该党与政府合作建立了农产品市场。”

京畿道省教育厅厅长李在贞说：“因为我是从9月9日开始上学的，所以如何处理这段期间的午餐是教育办公室的任务。”他说，“我们需要进一步研究并找到计划。”

<한글 기사 48면> 왕그나 기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해야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 대응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다” 권정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저 출생 시대가 지속됨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으며 저 출생 문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영유아와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대응과 투자는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소중한 책무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적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통과 최갑철 의원, 지역 소방능력 강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목)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우선 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등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명된 후에는 장비 조작과 화재진압 등에 관해 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교육하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자료를 만드는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관서별로 교육 내용이 상이하여 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모집 신청자 중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이재명 도지사, SNS로 결성 안내

경기도의 모든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방침에 경기도의회도 즉시 화답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 중이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해 다문화가족들도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1일 개원한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적인 검

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들과 동시에 합산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다수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통 큰 결단으로 많은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재명 지사님의 세심함과 배려심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확실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러한 앞선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은 지난 4월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베트남어 35면>

이지은 기자

집콕족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호응

다문화가족도 맞춤형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는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은 박물관, 미술관의 기획전시나 도서관의 추천 도서와 같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하여, 시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짜배기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제공한다. 누구나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사이트(GSEEK)를 통

해 ▲정리수납법 ▲수어 ▲영상편집 ▲PPT 만들기 ▲코딩 ▲셀프 자동차관리법 ▲재무관리 ▲영어회화 ▲인문학개론 ▲요리 등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엄선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공식 블로그에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부천평생학습큐레이션’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 김수정 소장은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多文化家族教育情報、登校5月初旬からのスタートとなるか

コロナ事態のために学齡期の子どもの登校が何度も延期され、家に籠もりっぱなしの家庭はたいへんな思いをしている。

そのため、子どもたちの登校を望む保護者の声も大きくなっているが、政府が登校時期の概略を公開した。

チョン・セギョン國務總理は4月27日、“教育部では遅くとも5月の初めには登校時期と方法を國民にお伝えできるよう諸般手続きを進める”とし、“特に入試を控える高3と中3の學生を優先考慮し、隨時登校させる方法について集中的に意見を集める”ように指示した。

チョン總理はこの日の午前、政府ソウル廳舎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を主宰し、“子どもたちの安全は何により妥協できないが、だからといっていつまでもコロナ19の終息を待つのなら、學生たちは家に籠もりつ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これに先立ち4月20日に、政府は緩和された社會的距離を5月5日まで延長することにした。これに伴い現在オンライン授業を進めている學生たちの登校可否も検討している。

チョン總理は“オンライン始業を決定した時と同じように教育界と地域社會、保護者の考えが重要だ”とし、“生活の距離の履行を決定する時期が近づいているため、時間はあまりない”とした。

続いて“登校するならば、一線學校で準備する事項がたいへん多い。先生たちはマスクを着用して授業するのか、物理的距離をどう維持するのか、給食衛生はどう確保するのか、簡単に決められない細かい事項がたくさんある。少なくとも一週間の準備期間が必要だというのが現場の意見”だと強調した。

チョン總理はこのような諸般事項を考慮して、遅くとも5月初旬登校時期と方法を案内し、高3と中3の學生から順次登校する方法を検討するように指示した。

また“週末など、連休に遊びに行く方たちが多いようですが、國民の皆さんは共同體の安全をどう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よく分かっておられるはず”だとし、“どこに行っても防疫を徹底して守って下さい。連休は私たちの社會が、防疫と日常を調和を保って並行する力量があるのかを見極めるリトマス紙となる”とした。<한글 기사 21면>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본창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중요요만개!

오산 취약위기가정, 다문화가족에 나눔 필요한 시기!

오산건강가다, 코로나19 대응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노력



코로나19와 관련, 최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관내 거주 시민의 생활을 보살피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관내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내 자녀 온라인 개학 대비

지난 4월 13일부터 오산시건강가다에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다문화방문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위기가정 및 다문화가족 60가정의 온라인 개학 대비 1:1 긴급과견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센터는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온라인 개학

에 발표한 긴급원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화상담 창구를 열었다.

△지역 후원연계를 통한 생계지원

또한 오산시건강가다가는 지역내외 기관과의 후원연계를 통해 난방비, 생계비, 생활용품 등을 취약위기가정과 다문화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가족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가정에게는 센터에서 별도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병희 센터장은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후원물품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오산세마쌀을 구매하는 등 오산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위기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나눔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йдут ли дети в школу в начале мая?

В связи с образовавшейся обстановкой,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19, посещение школ откладывается, дети остаются дома с родителями что вызывает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трудности.

Желание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хотя т, чтобы их дети посещали школу растё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ределило прим ерные сроки начала посещения шко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жонг Се Гюн 27 апреля сообщил: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чале мая, пройдя все процедуры, осведомит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о начале посещения шко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учащихся старших (3) и средних (3) школ, которым предстоит сдача экзаменов. Посещение школ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оэтапно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обсуждении различных мнений"-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Утром этого дня в здании столич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ула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ись методы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оследств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инфекции Корона 19.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жонг сказал: "Несомненно безопасность детей по важности не может сравниться ни с чем, тем не менее, ожидать оконч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Корона 19 и постоянное нахожд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дома не дело."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продлить соблюдение дистанции в обществе с 20 апреля по 5 ма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осещении школьниками школ,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 онлайн-занят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жонг сказал: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начать онлайн обучение важна точка зр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одителей учеников" и добавил: "Нет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потому ч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время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б осуществлении соблюдения дистанци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продолжение он сказал: "Если школьники пойдут в школу, возникну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решить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началу обучения в школах. Носить ли учителям маски, каким образом соблюдать физическую дистанцию, как обеспечить гигиену питания. Детали,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быть с лёгкостью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не одна и не две. На подготовку необходимо минимум 2 недели"- подчеркнул он.

Учитывая все эт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жонг поруч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план руководства обучения в школах и не позднее начала ма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когда и к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начато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план начала обучения в школах для учеников старших (3) и средних (3) школ.

〈한글기사 21면〉

초기 상담 및 정착 지원...해외입국자 통역도 실시

오산건강가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눈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근래 한국은 매년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오산시건강가다가는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족갈등, 부부갈등, 자녀양육 등 가정 내 생활에 관한 문제부터 비자 갱신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산시건강가다가에서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어 통번역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등의 오산시민은 △국

가 간 문화 차이에 의한 가족생활 문제 △입국 초기 상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안내 △국적 및 체류 관련 정보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교육 내용 통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행정, 사법기관 이용 △출입국,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건강가다가는 현장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각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센터에서 직접 서비스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해당 통번역 서비스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센터 업무 시간(9:00~18:00) 안에 요청 가능하다.

베트남어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오산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72-13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산시건강가다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해외입국자에 한시적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국내 자가 격리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오산시건강가다가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베트남 입국자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통역해 안내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유선상으로 체크해 오산시청에 보고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함께 모여 ‘모두안마음 가족봉사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가족봉사단 모집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에서 2020년 모두안마음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구성원 20인을 모집한다.

모두안마음 가족봉사단에 참여를 원하는 오산시민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osan.family.net.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appycenter@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가족봉사단 활동 내역은 모두 자원봉사포털1365에 봉

사활동 실적으로 등록되며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추후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개인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및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족봉사단 활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한 모두안마음 가족봉사단 활동의 취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정 내 자녀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봉사정신 및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두안마음 가족봉사단 일원은 오는 6월 출범식 및 기초 소양교육을 거쳐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를 통해 봉사자들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기관과 연대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팀(031-377-9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Hỗ trợ 700,000won chi phí nuôi con và 3 triệu won trợ cấp lao động dành cho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Chính phủ sẽ có kế hoạch trợ cấp tối đa 3 triệu won tiền trợ cấp lao động cho các hộ gia đình thu nhập thấp và 700,000won tiền hỗ trợ nuôi trẻ em. Đây cũng là một tin mừng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gặp khó khăn vì virusCorona. Tiền trợ cấp lao động là một hệ thống phúc lợi khuyến khích lao động và hỗ trợ thu nhập bằng cách trả tiền trợ cấp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dưới một số tiền nhất định. Tiền hỗ trợ nuôi trẻ em được chi trả khi có trẻ em dưới 18 tuổi (sinh sau ngày 2 tháng 1 năm 2001) để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em.

Tiền hỗ trợ này sẽ được phân loại ra thành từng nhóm tùy thuộc vào hoàn cảnh của gia đình đó có vợ/chồng hay có đang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hay không. Các nhóm chính đó là hộ gia đình độc lập, hộ gia đình có vợ/chồng lao động và hộ gia đình mà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đang tham gia lao động

Các hộ gia đình độc lập là các hộ gia đình sống một mình, các hộ gia đình có tổng số tiền hỗ trợ dưới 3 triệu won, và các hộ gia đình có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tham gia lao động sẽ trên 3 triệu won

Đ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ừ chi phí nuôi dạy trẻ đến hỗ trợ khuyến khích lao động thì các hộ gia đình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ý phải đáp ứng được những quy định về thu nhập trong tổng thu nhập năm 2019 ra

chính phủ đưa ra.

Đối với tiền trợ cấp khuyến khích lao động, tổng thu nhập đối với hộ gia đình độc lập là từ 40,000won đến dưới 20 triệu won, hộ gia đình một thành viên tham gia lao động sẽ đáp ứng được tiêu chuẩn có tổng thu nhập từ 40,000won đến dưới 30 triệu won và hộ gia đình mà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tham gia lao động sẽ có tiêu chuẩn về tổng thu nhập là 6 triệu đến dưới 40 triệu won.

Ngoài ra, tính đến ngày 1/6/2019, tổng tài sản bao gồm nhà ở, đất, tòa nhà cho thuê và tiền gửi mà tất cả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sở hữu phải dưới 200 triệu won. Trong trường hợp này, số nợ sẽ không được trừ khỏi tài sản và khi nộp đơn xin trợ cấp cục thuế thực hiện điều tra tài chính hộ gia đình để thẩm tra cụ thể.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đối với khuyến khích lao động dành cho gia đình độc lập là từ 30,000won đến 1,5 triệu won, gia đình có một thành viên tham gia lao động từ 30,000won đến 2,6 triệu won và gia đình có hai thành viên đều tham gia lao động là từ 30,000won đến 3 triệu won. Số tiền hỗ trợ chi phí nuôi dạy trẻ dành cho 1 trẻ là từ 500,000won đến 700,000won. Nếu tổng tài sản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dưới 140 triệu won đến 200 triệu won thì sẽ chỉ có thể nhận được 50% số tiền hỗ trợ. Thời gian đăng ký bắt đầu từ tháng

5 và tháng 8 sẽ có thể được nhận hỗ trợ.

Tổng cộng 5.68 triệu hộ gia đình được hướng dẫn về tiền trợ cấp khuyến khích lao động và chi phí hỗ trợ nuôi dạy con cái năm 2019. Cục thuế đã lựa chọn chế độ thanh toán nửa năm trong số đó và hướng dẫn 365 triệu hộ gia đình ngoại trừ 2.03 triệu hộ gia đình đã đăng ký trong tháng 5.

Tổng cục thuế đã gửi thông báo cho các hộ gia đình đủ điều kiện để đăng ký. Tuy nhiên, ngay cả khi các bạn không nhận được bản hướng dẫn, các bạn cũng có thể đăng ký, vì vậy bạn nên tự kiểm tra xem bạn có đáp ứng được các điều kiện đã được đặt ra hay không.

Nếu bạn không biết 'có phải là đối tượng hướng dẫn đăng ký' hoặc 'số chứng nhận cá nhân' do mất hoặc không nhận được hướng dẫn, các bạn có thể kiểm tra trên trang web Home Tax hoặc trên điện thoại thông minh (ứng dụng cụ điện thoại). Khi nộp đơn, nhất định phải nhập số tài khoản và số điện thoại di động dưới tên của bạn và nếu bạn hoặc vợ/chồng mình có nghĩa vụ khai báo thuế thu nhập tổng hợp, bạn phải làm điều này trước.

Để tìm hiểu thêm thông tin chi tiết các bạn có thể liên lạc đến tổng đài hỗ trợ chi phí của Cục thuế tại địa phương mà bạn đang có địa chỉ cư trú.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多元文化的家庭教育信息，孩子可以在五月初开始上学吗？ 우리아이, 5월에 학교갈까?

因疫情危机使孩子上学的时间推迟了，不得不与孩子一起住在家里的家庭遇到了困难。

因此，希望孩子上学的父母的愿望也在增加，政府透露了大概的上学时间。

首相郑世庚在4月27日说：“教育部应采取一切程序，最迟在5月初通知公众入学的时间和方式。”并认真收集有关计划的意见。”

钟总理今天上午在首尔市政府大楼主持下，召开了一次针对新冠病毒传染病的中央灾难安全对策中心的会议，他说：“儿童的安全不会受到任何损害，

这就是为什么我们无条件等待科罗娜19的结束，学生们不得不被关在家里。”

此前，政府决定在4月20日至5月5日之间延长社交距离。因此，我们还在考虑当前正在进行在线课程的学生是否上学。

钟总理表示：“我们没有多少时间，因为生活上需拉开距离，就像当初根据教育社区，社区和父母的想法与决定开始网上学习时一样重要。”

“如果上学，在一线学校需要准备很多东西。教师强调，戴口罩，如何保持身体距离以及如何确保食

品卫生不是一个或两个细节，是不容易理解的，”

考虑到这些问题，钟总理最迟在五月下旬指示学校何时及如何上学，并指示他们依次考虑从高中和中学入学的方式。

他说：“有很多人在假日（例如周末）外出度假，但国每个人都知道如何保护社区的安全。”这个假期将是一本石蕊杂志，用以衡量我们的社会是否有能力协调不和谐与日常生活的和谐。”

〈한글 기사 21면〉

왕그나 기자

코로나19 위기에도 파주의 다양한 가족은 ‘슬기로운 아빠생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역할지원 및 통번역지원 사업 눈길



‘슬기로운 아빠생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2020년 부모역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역할지원 사업은 임신·출산 준비단계부터 영유아, 학령기, 예비부부, 아버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부모의 단계별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문화체험, 아버지 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역량강화 및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의 아버지도 임은 또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모임을 갖고 자녀 양육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아

버지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버지 모임에서는 아버지들이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 이웃의 친구를 사귄다. 또한 다른 아버지들은 또래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는지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작년 참가자는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또래 아버지들을 새롭게 사귀고 아이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슬기로운 아빠생활의 대상가족은 영유아, 초등, 중등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들만의 고충이나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비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들에게도 이야기 해주며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나 우선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현황에 따라 모임 일정을 조정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문의는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31-949-9164(교육팀)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사업(베트남어)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2012년 2월부터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통역 450건, 번역 108건, 정보제공 812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에는 현재 통역 86건, 번역 20건, 정보제공 184건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습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며 통번역서비스가 필요한 유관기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9:00~18:00)까지 내방

및 전화, 이메일, 출장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입국초기 상담, 국적, 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안내,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출산-양육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전화 및 이메일, 행정 및 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이다.

현재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타 언어권 통역지원원은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중국, 베트남, 영어, 캄보디아, 몽골 등 8개국)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권의 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교부 27일부터, 다문화가족도 신청

파주시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인구가 밀집된 교하 운정 지역에는 아파트, 경로당 등 집과 가까운 곳에 ‘지역별 이동창구’ 52개를 개설했다.

4월 27일 14시부터 5월 3일까지는 집중교부 기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9시~20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18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공공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 자리에 맞춰 방문해야하며 주말은 누구나 수령할 수 있다. 집중교부 기간 중 지역별 이동 창구 운영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내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세대별로 20만원 또는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교부한다. 7월 31일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또한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로 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농특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다문화가족도 농가돕기 나서요

파주시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 돕기에 나섰다.

3월 13일부터 시작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시청 내 판매를 시작으로 임진각 광장 내 드라이브 스루 판매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쌀, 화훼, 참송이버섯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각 농가들이 준비한 쌀 200여포, 장미 7천500송이, 국화류 2천280송이, 분화 800여개, 참송이버섯 300봉 등 약 2천만 원 어치의 농특산물이 판매됐다. 또한 임진각 광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거래 장터에서 품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하고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도움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소비자도 좋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등교개학 대비 예방물품 지원 코로나19, 학생 안전 확보하기

파주시는 지난 20일부로 초·중·고 전 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가운데 앞으로의 등교개학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도입했으며 향후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은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과 보건당국과의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교개학을 위한 사전 대비를 위해 전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04교에 비축용 덴탈마스크 3만 여개 및 손소독제 2천440개를 지원했다. 또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손소독제 및 살균제 760개를 추가로 지원했다. 개학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교사용 마스크 5천880매, 특수학교 학생용 면마스크 1천매, 보건실 및 급식실 관계자를 위한 면마스크 5천매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기존 교육경비 프로그램을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필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는 기자

NOTE

Hau suporta mehi traballador estranjeiru sira nian

Estranjeiru
Sistema Autorizasaun
ba emprego



Timor-Leste



01

saláriu atu selu tomak ka lae?

Ida nebe mak pagamentu saláriu nian

-Se entidade patronal ona la selu saláriu ba bainhira mak deside atu selu saláriu atu selu fali ba serbisu

-Inklui to'o unilateral saláriu ka benefisiu reforma la selu iha loron 14, sura hahú loron ne 'ebé rezignasaun laho konsentimentu hosi parte

Bele rezolve ida-ne'e bainhira la-hetan pagamentu hosi saláriu.

-Iha kazu naun-pagamentu hosi saláriu, ida-ne'e bele fô hatene ba Ministériu kona-ba Emprego no Traballu, nebé mak iha jurisdisaun kona-ba negósiu sira-nia nian, ka prosesu sivil ida bele apresenta ho tribunal

-Se servisu fatin mak bele, ita bele aplika ba estragu ida ne bē pecuniary *

* Dedusaun: Se traballador ida la simu vensimentu falsia ka razeun sira seluk, estadu sei selu saláriu

Division	Kalma ou reklama	Ajuda luhosi fôju civil
Step	Rezolve problema ne'e ho durasaun kasar ka kesar ba Ministériu Traballu no fô patraun iha presau ba kastigu kriminal	Aprezenta asau iha tribunal, no apresenta orden atu prezerva
Advantages	-bele fôti desizaun laiais -Dalan atu rezolve Kustu no prosedimentu ho diak / simplifikadau	Iha posibilidade atu kumpri ba garante husi lasu/vinkulu saláriu
Diadvantages	-Se entidade patronal la iha kapasidade atu selu saláriu, ida ne'e susar at rezolve kazu	Tempu no kustu todan boot

02



Ha'u prezisa dokumentu sira nebé tuir mai ne'e.

-Informasaun servisu fatin ebé hanesan rezolve negósiu, informasaun nebé kontaktu no patraun sira-nia naran
-Kontratu serbisu nian, deklarasaun pagamentu saláriu, halo pagamentu istoria
-Sasin maluk, servisu rejistru, nsst.

Solusaun mak hanesan tuir mai ne'e.

-Tempu no kustu todan boot

* Halo FAVOR: Ezije pagamentu saláriu ne 'ebé la hetan selu

* Perigu: Ezije patraun atu fô kastigu ba patraun sira ba violasaun sira hasoru Abi Padraun sira Traballu nian

Relasiona ho faktu investigasaun (patraun, funsiônáriu)

Determinasaun kona-ba vensimentu postponed

Instructed entidade patronal sira atu selu fali vensimentu

Kuandu entidade patronal sira lakohi atu selu saláriu, kriminal ne 'ebé mak fô kastigu

Liu kazu sivil iha tribunal

¶ Financia Negósiu seguru - Saláriu garantia seguru ▶ pájina 14

Kona-ba Emprego no Traballu Konsulta Sentru ☎ 1350
Sentru konsulta maundeobra estranjeiru ☎ 1577-0071

03

02

imi injustamente demisaun ka lae?

Saida mak bainhira primeiru demite ministru?

-Hapara relasaun emprego unilateralmente kona-ba entidade patronal, la haree ba nia neran ka parlamentu nasional nian, hanesan hahakok nebé entidade patronal unilateralmente ne'e halakon relasaun emprego, kona-ba mate-isin.

Restrisaun demisaun



-Patraun bele la unilateralmente demite traballador sira nebé la iha razeun sira nebé bele justifika

Bainhira demisaun tanba sirkunstánsia sira kona-ba empreza, katak tanba razeun jestaun, demisaun rezizitu no prosedimentu balun tenke halo tuir.

Halo ida-ne'e bainhira ita mak injustamente demisaun.

-Se imi mak injustamente demitidu iha fatin ida ho funsiônáriu sira nebé 5 liu, ita bele aplika ba ajuda ba komité kona-ba traballador lokal sira ne 'ebé lokal *

-Se imi rekofesidu hanesan demisaun nebé la justu, ita bele fila fali ba imi-nia servisu orijinal ka ita bele selu durante terminasaun se ó hakarak atu sai reinstated

-Karik servisu-fatin funsiônáriu-5 menus liu, ita bele hato'o prosesu ida ho tribunal.

* Aplikasaun ba solusaun: Aplikasaun tenke halo iha fulan 3 nia laran, sura hahú loron ne 'ebé la justu demisaun

04



Solusaun mak hanesan tuir mai ne'e.

-Se ita servisu iha fatin ida ho funsiônáriu lima ka liu, no imi mak injustamente demisaun, rekursu hirak tuir mai ne'e mak prezisa.

Konsultasaun ho espesialista traballu nebé Organiza asuntu nebé prezisa ba solusaun

Demisaun nebé la justu iha ba traballador sira lokal komité Solusaun sira-nia aplikasaun no razeun ba sira-nia aplikasaun

Pagsasagawa ng pulong ng local labor council

Kuandu nia sei deside iha demisaun nebé justu Reinstatement no kompensasaun nebé hanesan

Se entidade patronal asuntu orden final Imposisaun osan-mean fursadu se la implementa

Kona-ba Emprego no Traballu Konsulta Sentru ☎ 1350
Sentru konsulta maundeobra estranjeiru ☎ 1577-0071

05

03

Hetan kanet wainhira servisu?

Saida mak dezastre industriál ?

-Traballador ida mak mate, kanek ka moras husi servisu sira ne 'ebé relasiona ho servisu no servisu sira seluk.
-Iha kazu kona-ba nesesidade tratamentu liu loron 4 tanba dezastre industriál ka mate, kompensasaun ba seguru husu ajuda industriál ne'e posivel.

Tipu seguru husu ajuda industriál benefisiu sira hanesan tuir mai ne'e.

Ha'u bele reimburse insurance estragus ba asidente industriál.

Tipu benefisiu	Konteude kompensasaun nebe boot
Benefisiu tratamentu mediku	Halo pagamentu ba tratamentu mediku to tempu hetan kanek
Taka negosiu	Selu ba ita boot nia persija moris sekarak ita la bele Servisu tamba tratamentu
Benefisu defisiensi	Sekarak ita halo hela tratamentu mediku tamba hetan deajstra husi Servisu no sai defisiensi husi kompania sei selu
Benefisu enfermagem	Sekarak traballador persija hare/care depois halo tratamentu
Benefisu sobrevivente	Sekarak mate wainhira halo Servisu iha industriál kompania
Despeja kapitulu	Kompania sei selu ba traballador nebe mate durante halo servisu
Kompensasaun moras	Sekarak ita boot la hetan kura depois halo tratamentu

06



Rezolve ida-ne'e iha ida dezastre industriál.

-Iha kona kazu ba asidente industriál, traballador apresenta aplikasaun kompensasaun husu ajuda industriál nian ida ba Traballador sira-nia moris-D'ak Servisu

-Direitu atu aplika ba serbisu-na'in, no bele aplika direktamente sein atu ida ho ida-ne'e iha servisu fatin ka la konkorda ho aplikasaun industriál husu ajuda.

halo ida-ne'e bainhira akontese dezastre industriál.

-Rejistu akontesementu momentu ida husu ajuda industriál, kauza, situasaun iha kampu, nsst.

-Se imi mak hetan kanek, bolu kareta emergjénsia 119 no transporte sira ba ospital.

-Hare ba kanek situasaun hanesan ne'e iha ospital

-Akizisaun fotografia fatin sira seluk, deklarasaun sasin, nsst.

Aplikasaun husu ajuda industriál ida mak prosesa hanesan tuir mai ne'e.

1 Tratamentu (bainhira repetisaun no exacerbatoin)

Fô-susu ba aplikasaun ▶ fô-susu ba kuidadu ▶ fô-susu ba kuidadu

2 kompensasaun

-Defisiénsia no parteira benefisiu kuidadu
-Can-kiak familia rendimentu no despeja
-Saláriu taka ba perodu dezempregu tanba tratamentu mediku

Traballu moris-D'ak Korporasaun ☎ 1588-0075

07

04

saida mak Akontese se ha'u iha abuzu seksuál iha ha'u-nia servisu fatin?

Saida mak abuzu seksuál iha servisu-fatin?

-Atu fô sentimentu nebé laurak no humiliating kona-ba dezempetu hasoru ema, nia hakarak
-Patraun sira, superior sira ka maluk serbisu-na'in sei la uza pozisaun sira seluk iha servisu-fatin fô kastigu ba traballador sira seluk ba kiak seksuál ka empregu



Abuzu seksuál iha servisu fatin ne'e hanesan krime ne 'ebé violentu

* Abuzu Seksuál iha workshop no pinios liur servisu-fatin mos konsidera hanesan abuzu seksuál iha servisu-fatin

Asaun sira nebé tuir mai ne'e mak abuzu seksuál.

1 hahakok verbal

-Jokes la fô'er ka whispers
-Analogy seksuál ka avalasaun kona-ba roupa, isin-lolon aparénsia
-Persistentelemente husu ba faktu sira ne 'ebé seksuál ka ho intensaun atu habelar informasaun kona-ba konteudu seksuál
-Asaun hanesan tuur iha fatin partidu ida, no ne'ebé obriga ema atu banati-tuir alkohol
-Obriga seluk ka renúnsia relasaun seksuál
-Xamada Telephone ho konteudu la fô'er

08

Kona-ba Emprego no Traballu Konsulta Sentru ☎ 1350



2 Pávidade Fôju

-Kontaktu fiziku hanesan rei, hakeok no hakeok husi kotuk
-Kaer ou lamas parte isin lolon hanesan kidun
-Obriga budi isin ou halo trosa

3 Komportamentu visual

-posting ka hatudu fotografia lia fô'er, dezerhu, graffiti, pubikasaun lia fô'er, nsst.
-hare direta fax, computer, sst., atu haruka surat lia fô'er, dezerhu, fotografia
-Hatudu ho intensaun ka hato'o parte órgaun balun relasiona ho seksu
-Look at or look over a specific body part of the other person

Se abuzu seksuál akontese, halo tuir!

-esplisitamente nega, nebé hato'o ba ator
-Hetan rejistu spesifiku data, tempu, fatin, detalhe sira ne 'ebé spesifiku, testemuña ka testemuña, no hancin kona-ba lian seksuál ka hahalok.
-Husu atu hapara sira mos no lida ho senior
-Konsulta ba Kargu Traballu Emprego Lokal

*Seksuál Abuzu Anonymous Relatóriu Sentru (www.moel.go.kr)
Homepage - aplikasaun sivil - abuzu Seksuál iha servisu fatin relatóriu ne 'ebé laha Naran janelá

Telefone emergjénsia bolu (bainhira asaltu seksuál, molestation) ☎ 1386

09

파주시, 다양한 할인과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합니다’

다문화가족에도 도움 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상수도요금 납부 연장 등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파주페이 발행규모 확대 및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기존 121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389억 원 규모로 발행계획을 확대했다.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도 당초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 연장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 원 미만 업소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0.5%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페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할 경

우 NH농협은행 53곳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금액의 10% 할인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최초 1회 신청 필수)도 받을 수 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연장,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파주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을 연장했다.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파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을 입차 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차 후 2시간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금촌2(금릉 로데오 철탑)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 통일시장 ▲금촌 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2-8(세무서 맞은편) ▲금촌역 선로하부 ▲운정역 환승 ▲광탄경매시장 ▲문산자유시장 ▲문산1(시장 안) 공영주차장 등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는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당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된다.

■ 공유재산 임대료, 상수도요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연장

파주시는 영세 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오는 5월 임시회를 거쳐 현행 5%가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6개월) 동안 임대료 80%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 40여 곳의 연 임대료는 약 11억2천만 원이며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4억4천800만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시는 4월부터 3개월간 일반용,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은 약 1만6천100개, 총 감면액은 약 33억 원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대상 약 5억4천만 원

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파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의료업, 음식점,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គម្រោងទ្រទ្រង់ សំរាប់ការបកប្រែ

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ដុំស៊ី យើងខ្ញុំ កំពុងបើកដំណើរការនូវសេវាកម្មបកប្រែភាសា ជូនដល់ពលរដ្ឋ ជាជនបរទេស រួមមានជនជាតិ ថៃ និង កម្ពុជា ផងដែរ.



- តើគម្រោងទ្រទ្រង់ សំរាប់ការបកប្រែនេះជាអ្វី?
គម្រោងនេះបង្កើតឡើង សំរាប់ជួយដោះស្រាយបញ្ហា ជូនដល់ពលរដ្ឋជាជនបរទេស ដែលកំពុងជួបការលំបាក តាមរយៈការបង្ហាញចេញជាភាសាកូរ៉េ ក្នុងជីវិតប្រចាំថ្ងៃ, និង ជួយទ្រទ្រង់ដល់ពលរដ្ឋជាជនបរទេស ធ្វើយ៉ាងណា អាចតាំងទីលំនៅបាន ប្រកបដោយស្ថេរភាព.
- អ្នកចូលរួម : ពលរដ្ឋជនបរទេស ជនជាតិថៃ និង កម្ពុជា
- ការងារដែលមានផ្តល់ជូន : បកប្រែជូន នៅពេលលោកអ្នក កំពុងជួបនូវការលំបាក តាមរយៈការបង្ហាញចេញជាភាសាកូរ៉េ មិនថានៅក្នុងរង្វង់គ្រួសារ និង នៅកន្លែងការងារ, បកប្រែជូន ក្នុងករណី លោកអ្នកត្រូវការប្រើប្រាស់ស្ថាប័នសាធារណៈ, ធនាគារ និង មន្ទីរពេទ្យ ជាដើម.
- ទំនាក់ទំនង : ក្រុមទទួលបន្ទុកផ្នែកអប់រំ នៃ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ដុំស៊ី
ថ្ងៃចន្ទ៖ 09:00-18:00
ម៉ោងសំរាកអាហារថ្ងៃត្រង់ 12:00-13:00
☎ 031-949-9164

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ជាដុំស៊ី

គម្រោងអប់រំ សំរាប់ការបកប្រែ

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ដុំស៊ី យើងខ្ញុំ កំពុងបង្កើតយុទ្ធសាស្ត្រអប់រំសំរាប់ការបកប្រែភាសា ជូនដល់ពលរដ្ឋជាជនបរទេស រួមមានជនជាតិ ថៃ និង កម្ពុជា ផងដែរ.



- យោងតាមគម្រោង សំរាប់ការបកប្រែនេះជាអ្វី?
គម្រោងនេះបង្កើតឡើង ដើម្បីជួយ ដល់ស្ត្រី និង បុរស ដែលមានជំនាញខ្ពស់ ឬ លក្ខណៈជំនាញខ្ពស់ តាមរយៈការបង្ហាញចេញជាភាសាកូរ៉េ ក្នុងជីវិតប្រចាំថ្ងៃ, និង ជួយទ្រទ្រង់ដល់ពលរដ្ឋជាជនបរទេស ធ្វើយ៉ាងណា អាចតាំងទីលំនៅបាន ប្រកបដោយស្ថេរភាព.
- អ្នកចូលរួម : ពលរដ្ឋជាជនបរទេស ជនជាតិថៃ និង កម្ពុជា
- ការងារដែលមានផ្តល់ជូន : បកប្រែជូន នៅពេលលោកអ្នក កំពុងជួបនូវការលំបាក តាមរយៈការបង្ហាញចេញជាភាសាកូរ៉េ មិនថានៅក្នុងរង្វង់គ្រួសារ និង នៅកន្លែងការងារ, បកប្រែជូន ក្នុងករណី លោកអ្នកត្រូវការប្រើប្រាស់ស្ថាប័នសាធារណៈ, ធនាគារ និង មន្ទីរពេទ្យ ជាដើម.
- ទំនាក់ទំនង : ក្រុមទទួលបន្ទុកផ្នែកអប់រំ នៃ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ដុំស៊ី
ថ្ងៃចន្ទ៖ 09:00-18:00
ម៉ោងសំរាកអាហារថ្ងៃត្រង់ 12:00-13:00
☎ 031-949-9164

មជ្ឈមណ្ឌលទ្រទ្រង់សុខភាព.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ជាដុំស៊ី

‘늘봄마스크는 사랑의 버스를 타고’

군포건가다가, 주민참여형 마스크 나눔 행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마스크를 취약계층 가정 및 군포시 버스운수회사인 ‘군포운수’에 기부했다.

늘봄마스크 프로젝트는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 가정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민 모두의 힘을 합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자는 메시지를 담았

다.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 가정 76곳에서 군포시건가다가에서 준비한 마스크 제작 키트를 수령해 봉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총 203개의 마스크를 완성했다.

군포시건가다가는 이들이 만든 마스크를 기부 받아 그중 70개를 지난 4월 3일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이후 군포시건가다가는 4월 16일 133개의 마스크를 버스 운수 회사 ‘군포운수’와 나누었다. 이에 군포운수의 양영범 상무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회사가 많이 위태로운 와중에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마스크를 후원해주셔서 굉장히 기쁘다. 힘든 시기에 대중교통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성희 센터장은 “공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운수회사에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나눔이 선순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다문화 가정 및 비(非)다문화가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최예지 기자

중국 린이시 마스크 2만장 기부

군포시민 안전 도움 되길 바래요

군포시는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린이시가 군포시의 코로나19 극복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일회용 덴탈마스크 2만장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린이시 맹경빈 시장은 서한을 통해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가장 먼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군포시에 감사하다”며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마스크가 군포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답신에서 “자매도시의 우정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린이시에 감명받았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와 린이시는 2012년 3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 린이시 소재 기업인 (주)산동란화그룹이 마스크(KN95) 1만장을 지원해 관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활동을 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전달된 바 있다.

최예지 기자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등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도 도움될 듯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수급자로 결정된 군포시민이며, 지역화폐인 군포애(愛)머니를 지급한다.

전액 국비인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분야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또한 주거와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는 148만원이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즉시 군포애머니 카드를 받은 뒤, 지원금 충전을 확인하고 군포애머니 가맹점에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소비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1-390-0639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 이제 가정에서 학습해요

군포건가다가, 다문화가족에 놀이수업 프로그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 군포건가다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색 놀이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 시설과 학교 등에 내려진 휴교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포건가다가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 및 교육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놀이수업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족 유일무이 케이크 만들기’ ‘가족과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등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양육자와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함께 만들기 과정을 수행하고 제작 과정 및 소감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자는 게 기획의 골자다.

‘통하는 아이, 통하는 부모’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 가정 내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

족의 관심을 샀다.

이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문화가족 아버지에게 목공 활동 키트를 전달함으로써 아버지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군포건가다가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여간상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면식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목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9일 군포건가다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센터의 한 회원은 “아이가 쓰기에 안전한 천연재료를 제공받았다. 요즘처럼 개인위생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아이와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며 손 씻는 방법 및 위생 교육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군포시청 031-392-3000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95-1811 아시아의창 031-443-287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군포탁틴내일(아동 청소년 관련 상담) 031-393-4141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군포 관할) 031-463-07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진신고 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세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포스트 코로나,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 빠른 대응 고인

군포 비롯해 다수 센터가 비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소통 강화 노력 눈길



▲지난해 개최된 군포건가다가의 다가온 개소식. 맨 왼쪽이 박성희 센터장

〈1면에서 이어짐〉

Q.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병익(오산): 유사시를 대비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 전국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온라인 개학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에게도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강의 접속 방법이나 출결 관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한 채 개학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박성익(군포): 부모교육이나 아버지교육 등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사업은 콘텐츠만 만들어진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여러 가족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던 문화 프로그램 중 일부도 가정 안에서 가족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도출하는 과정은 비대면 평가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사업 등의 경우는 인원을 조절하고 2m 거리두기와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안전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는 조건 하에 집합교육을 고려해야 할듯하다.

Q.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최을용(명택): 센터 내 자조모임 인원과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센터의 이용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중단되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발견하면 이웃나눔활동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아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혜숙(남양주): 외국인주민 대면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례관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 창구를 통일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신속하게 정보가 오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 내에서 통번역 작업이 필요할 때도 적극 협조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의뢰하는 사례는 긴급한 건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유진(고양): 현재 3100명의 외국인 회원이 고양시 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센터의 직원이 모두 나서서 이분들에게 안부전화를 돌린다. 또 센터에서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면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간단하게는 안부를 여쭙는 정도로 끝나지만 사례관리 서비스로까지 진전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팀, 베트남팀, 기타팀 등 3그룹으로 나누어 자체 매뉴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현재 85% 가량 진행됐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코로나 사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나.

신순철(이천):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활발한 운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이용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센터 이용객들은 지난 몇 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단 감염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조심하는 자세를 학습했다. 경험을 통해 배운 태도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고 우리 센터는 이에 대한 방안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병익(오산):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센터도 생각이 많아졌다. 가장 먼저는 집합교육의 한계를 많이 체감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가정 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맞추어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다각화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줄 필요도 느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백정숙(아남):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약 5%에 육박한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1990년대부터 한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외국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복지공백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에 한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지만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 외국인주민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제인이며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 또는 부모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제도가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시민과 사회라고 나서야 한다.

이수익(용인): 어찌 보면 ‘다문화’라는 명칭 자체가 나와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근래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많이 겪었다. 이렇

때 한국 사회에 장벽이 존재함을 실감한다. 여태껏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구분치는 않다고 느낀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기회의 차별이나 경제적 소외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더 애써야 할 시점이다.

박성익(군포):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동시에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각 나라별 대응 방식과 행동 양식 등을 접했고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세계인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근래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와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빠르게 다가오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맞이하며 이끌어가는 큰 자산이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고 각 센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많은 센터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당수 비대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키트와 물품 역시 드라이브스루 방식 혹은 택배로 전달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를 맞은 각 센터들이 응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망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은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서비스부장은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 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맞이할 갈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들의 가족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콜센터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담, 가족, 개인, 임신 출산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영역을 위기 재난과 심리상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다. 재난기본소득과 공적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민 차별 문제가 그렇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위로를 얻었지만 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의 저력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사회와 만나 미래에 최대의 시너지를 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체 기사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참고〉

최예지, 송하성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như người đang sở hữu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của tỉnh GyeongGi

Tất cả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như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ở hữu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đều có thể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của tỉnh GyeongGi

Vào ngày 19/4, Chủ tịch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ung thông qua Facebook cho biết: "Tuy có tranh cãi nhưng cuối cùng chúng tôi đã quyết định cung cấp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thiên tai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và người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trong số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sống ở tỉnh Gyeonggi. Ý kiến của các thị trường trong tỉnh Gyeonggi nói chung cũng được đưa vào đối tượng hỗ trợ."

Tỉnh Gyeonggi đã gây tranh cãi khi loại trừ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không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trong chính sách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được công bố vào tháng 3 vừa qua đó.

Chủ tịch Lee Jae Myung nói: "Việc chi trả cho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người nhập cư bất hợp pháp và người nhập cư ngắn hạn là một điều không hợp lý.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hập cư đã kết hôn nhưng chưa có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nhưng họ kết hôn với một người Hàn Quốc và trên thực tế họ được coi là người Hàn Quốc' và 'xu hướng toàn cầu là không phân biệt đối xử giữa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với người Hàn Quốc'.

Theo chính sách của Chủ tịch tỉnh, Quốc hội cũng đã trả lời ngay lập tức và đang chuẩn bị các quy định liên quan.

Park Ok-bun, chủ tịch Hội phụ nữ và gia đình thường trú của Hội đồng Quốc hội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đang chuẩn bị điều lệ bằng cách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và người thường trú sở hữu quyền định cư. Chúng tôi sẽ nỗ lực để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nhận được thu nhập hỗ trợ này sớm nhất có thể".

Nghị định này đã được thông qua tại phiên họp tạm thời lần thứ 343 của Quốc hội tỉnh Gyeonggi khai mạc vào ngày 21

tháng 4 vừa qua.

Với quyết định này,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dự kiến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của 31 thành phố hỗ trợ chi trả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của tỉnh Gyeonggi. Chủ tịch Lee Jae Myung giải thích: "Vì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này là một vấn đề cấp bách đòi hỏi tốc độ nên không thể trì hoãn thời gian do kiểm tra chi tiết và có những tranh cãi. Sau khi chuẩn bị các thủ tục pháp lý như sửa đổi luật của từng thành phố, sửa chữa hệ thống, xác nhận đối tượng sau một thời gian nhất sẽ chính thức đưa vào hỗ trợ". Quyết định lần này dự kiến sẽ nhận được sự hoan nghênh từ nhiều gia đình đa văn hóa vì quyết định cung cấp thu nhập cơ bản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ho đa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Ngày 15/4, một người sử dụng Twitter cho biết: "Chúng tôi đang tích cực xem xét việc chi trả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và người cư trú vĩnh viễn". Một người khá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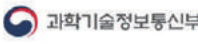
sử dụng Twitter cho biết: "Sự quan tâm của Chủ tịch Lee Jae Myung rõ ràng hơn bất kỳ chính trị gia nào trong lịch sử". Tuy nhiên, bất chấp quyết định trước đó của tỉnh Gyeonggi, cuộc tranh cãi dường liên quan đến đối tượ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ày dường như vẫn còn tiếp tục. Bởi vì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và nộp thuế ở Hàn Quốc vẫn bị loại khỏi đối tượng thu nhập cơ bản của thảm họa.

Các tổ chức như Ủy ban đối sách cộng đồng người lao động di cư khu vực Gyeonggi đã tổ chức một cuộc họp báo vào ngày 9 tháng 4 và kêu gọi người dân nước ngoài cũng là đối tượng để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Họ nói: "Phần lớn kinh tế là do lao động và sản xuất của người di cư." Họ cũng kêu gọi rằng họ đang đóng thuế bình đẳng với tư cách là cư dân của tỉnh Gyeonggi. "Đừng phân biệt đối xử với những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đang sống cùng nhau trong mùa dịch này."

<한글 기사 27면> 강혜나 기자

원활하고 안전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 10가지

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
01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 우선 사용 이동전화(LTE, 5G 등)보다는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원격수업 진행	02 영상 회의방 보안강화 권한없는 사람의 무단접입 방지를 위해 ▲ 화급방 비밀번호 설정 ▲ 링크 비공개 ▲ 초대자만 입장 허용
03 학습사이트 로그인 (log-in)은 미리미리! e학습터 등 로그인이 안되면 장시후 재시도! * 로그인에 계속 안될 경우 밴드나 카카오톡 이용해 출석체크 하기	04 안전한 프로그램 사용하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앱) 사용 자제 또는 보안패치 후 사용
05 수업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06 백신설치하기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백신 다운로드 *(예) software.naver.com - pc관리/보안 - 백신
07 수업 영상자료는 SD급 이하로 제작! SD급 화질 : 480p(720×480) 화질	08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URL 링크는 열람하지 않고 삭제
09 자료는 전날 17시 이후 업/다운로드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업/다운로드	10 개인정보 보호하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 사진촬영 및 외부배포 금지 공용 PC, 스마트기기 사용 후 개인정보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대한영양사협회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코로나19, 다함께 조심해요! 급식 에티켓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영양사협회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손은 물에 30초 동안 씻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음식물은 손 소독을 하고 위생복,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나눠줍니다.



3 음식물 분리는 앞 사람과 1~2m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음식을 나눠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4 마스크는 착용해 있을 때 반드시 적시에 벗어주세요.



5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얼굴 전체를 꼭 감싸주세요. 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6 식사 시 기침이나 재채기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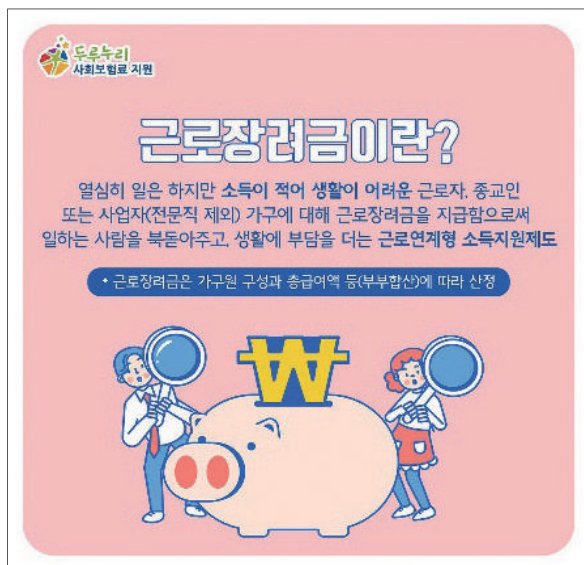
7 식사 후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8 식사 후 10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식사 후 10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저소득 다문화가족에도 도움될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70만원 준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

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 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5월 중에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대상은 총 568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5월 중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충족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해 ‘안내 대상자 여부’나 ‘개별 인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국어 39면, 베트남어 29면, 러시아어 21면, 일본어 40면, 태국어 24면>

이지은 기자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감면 가구당 매월 각각 10m³씩

광명시는 4월 21일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7월 부과분부터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관내 거주 세대 중 3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광명시는 가구 당 10m³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한다.

1m³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상수도 4만4천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수도과(02-2680-2942)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광명시인재육성재단 지급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승원)은 광명시 거주 대학생 15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 재단은 1999년 10월 설립된 이래 매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초 하반기 지급 예정이던 장학금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시급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재단에서는 장학금 신청기간이었던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242명의 학생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4월 안에 대상자 통장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돼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인재육성재단(02-6673-8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2020년 상반기

한국어 온라인 교육 4단계 추가 모집

- ★ 대상 : 한국어 3단계 수료한 결혼이민자
배치고사 점수가 4단계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 ★ 수업일시 : 4월 29일 ~ 7월 16일 10:00 - 12:00
(매주 월, 화, 수, 목, 금)
-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 수업비 : 무료
- ★ 수업방법 :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 문의 : 서미연 (02-6265-1366)
※ 1, 2, 3단계도 신청 가능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개인·가족간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실시합니다.

- 기간 센터 휴관 종료 시 까지
- 대상 개인 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누구나
- 문의 및 접수 ☎ 02-6265-1366 월~금요일(9시~18시)
- 전화상담 : 센터 전화 접수 →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 정하기
→ 배정된 상담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 사이버상담 : <https://gmfc.familynet.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버상담 → 글쓰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위한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예방! 면마스크 만들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코로나19 예방! DIY 면마스크 만들기’ 가족 사랑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사랑의 날 이벤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함께 참여하던 대면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광명시건강가다가에서 제공하는 DIY 면마스크 키트를 수령한 후 각 가정에서 개별 참여하는 형태의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로 변경하여 진행된 것이다.

4월 가족 사랑의 날에 참여한 가족들은 DIY 면마스크 제작 후 완성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극복 응원메시지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를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이다.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광명시건강가다가에서는 매월 1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체험활동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한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가족사랑의 날 행사에는 기존의 가족참여형 여가활동프로그램과 함께 가까이 만나는 문화공연 및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추가 계획하고 있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광명동굴 다국적 홍보단 웰커머 5기 모집’

광명도시공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및 해설 ...이주민도 지원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광명동굴의 다국적 홍보단(자원봉사) ‘광명동굴 웰커머 5기’를 5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또는 외국어가 가능한 한국인으로 전공이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 특히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웨이보 등 SNS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영어 10명, 중국어 3명, 일본어 3명, 베트남어 3명, 몽골어 2명, 태국어 2명, 기타언어 7명이다.

웰커머(welcomer)는 ‘환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광명동굴 다국적 홍보단의 명칭이다.

선발된 웰커머 인원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및 국내외 팸투어* 단체에게 광명동굴 외국어 해설 ▲광명동굴 문화행사 참석 후 체험 후기의 SNS 홍보 ▲SNS 매체에 광명동굴 외국어 홍보글 게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웰커머에게는 광명동굴 홍보단 위촉장이 수여되며 광명동굴 팸투어 진행 등 관광 실무 경험을 쌓고 광명동굴 문화체

험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웰커머는 재능기부차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지만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bc100@gmuc.co.kr)로 신청하면 되며, 웰커머 모집 관련 문의는 광명도시공사 동굴기획팀(02-2610-2017)으로 하면 된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 “광명동굴 홍보를 통해 관광분야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광명동굴 웰커머 모집에 광명시 외국어 재능자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팸투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여행 관련 단체 및 사람들을 초청하여 설명하는 행사

최예지 기자

광명시, 코로나19 피해 농가돕기장터 50% 할인

광명시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빠진 농가 돕기 농산물 장터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족도 산 값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가도 돕기 위한 행사에 참여해 보자.

해당 농산물 장터에는 광명시 작목반연합회 소속 농가 230곳과 광명시 화훼수출협회 소속 농가 10곳이 참여해 그날 오전에 수확한 채소와 꽃 등을 판매한다. 해당 장터는 싱싱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5차례 열린 농산물 장터에서만 1000여만원 가량의 농산물이 판매됐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1책상 1꽃 사업, 시민참여 꽃 심기운동 등을 통해 화훼 농가를 돕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농산물 장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박승원 시장, 거리캠페인 재난기본소득 착한 소비

“재난기본소득 빠른 신청, 소비가 곧 착한 소비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월 20일 철산역에서 시민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협회, 공무원 20여명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조기사용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다문화가족도 광명시의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 보자.

캠페인 참여자들은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와 사용처 등이 안내된 홍보지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이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소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강조했다.

최예지 기자

코로나 위기 속 복지 사각지대 있는 다문화가족 없도록!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격학습과 취약위기가족 지원 눈길

원격학습지원 시작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한 초등학생의 원격학습 지원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이고, 수요일에 따라 일반 가정도 지원한다.〈사진 왼쪽과 오른쪽〉

이번 학습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으로 개학,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은 보호자가 학습을 도와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원격학습 지원은 센터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스마트기기 작동법, 인터넷망 접속 방법, 온라인 학습방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방법, 화상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하고 있

며 온라인 개학 종료 전까지 가정 당 주 2회, 하루 2시간 지원한다.

센터는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종사자 사전교육을 마쳤으며 마스크 및 손 장갑 착용, 손 소독, 사전체온 체크 등 코로나19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연화 센터장은 “원격학습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들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24~28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례관리대상 40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했다.〈사진 가운데〉

이번 생필품 전달은 쌀, 과자, 라면 등으로 구성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위기가정에 사례담당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생필품을 전달받은 대곶면의 한 대상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신경 써 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센터도 위기 속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한국어교육, 온라인으로 개강

김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대상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오는 5월 6일부터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개강 예정이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센터의 휴관이 종료되기 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준비했던 10개반 중, 센터에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센터 한국어 1~4반과 주말반이 온라인으로 선개강한다.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된 후 오프라인 개강이 결정되면 온라인 수업을 종료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방식을 변경한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양촌, 대곶, 평생학습관, 통진 다가온) 5개반은 온라인 개강 없이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오프라인 개강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한국어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교육은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는 자부담이다. 보다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재의 구입은 필수이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타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회원은 센터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 이후 한국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2020년도 한국어교육 온라인개강(선 개강)

센터의 휴관으로 연기되었던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일부 개강합니다.
※양촌, 대곶, 사우, 통진반은 코로나19사태 종료 이후 오프라인 개강 예정

선개강과목	강의 장소	강의 일자	강사	교재
센터한국어1	온라인 (정상강의 시 구래동 센터 내 교육실2)	매주 월, 수 10:00~11:00	안월순	즐거움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센터한국어2		매주 화, 목 11:00~12:00	정춘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
센터한국어3		매주 화, 목 13:00~14:00	이정화	즐거움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센터한국어4		매주 월, 수 13:00~14:00	심인규	즐거움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주말반		매주 토 10:00~12:00	이한형	즐거움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 수강기간 : 2020년 5월 6일 ~ 오프라인 개강 전까지
- 대 상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이후 수강 가능)
- 수강방법 : KAKAO TV(추후 안내 예정)
- 비 용 : 수강료 무료 (교재비 별도)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재 구입을 추천합니다(개인구매)
- 문 의 : 031)996-5920 (사회복지사 강지수, 건강가정사 신유림)

京畿道災難基本所得、多文化家族はどうやって申し込むのですか？

家族數と出生年度別で申請、國籍取得していない多文化家族は約2週間後に申請

京畿道は4月9日から京畿道災難基本所得オンライン申請を受け付けている。コロナ19の感染蔓延による經濟悪化狀況を克服するための災難基本所得は、所得と年齢に関係なく2020年3月23日基準で京畿道に居住するすべての道民に、一人当たり1回10萬ウォンを支給する。

3月24日、京畿道災難基本所得發表時には、韓國國籍を取得していない外國人を支給對象から除外すると發表したが、以後移住民團體と女性家族部の要請に従い、外國人に対する支援を再検討した。その結果、4月20日に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結婚移民者と永住權者など、外國人住民に韓國人と同一金額の災難基本所得を支給すると發表した。

申し込む方法は？

今回の災難基本所得の申し込みは、なるべく人が一時に集まらないように様々な受け付け方法が準備されている。保有している個人の信用カードおよび京畿地域貨幣カードを活用し、オンラインで申請と、オフライン申請で先払カードの發給を申し込む方法の二通りだ。

5月中旬からは高齢者や障がい者など、直接申し込みが難しい人たちのために訪問受け付けサービスを施行する豫定だ。

京畿道災難基本所得オンライン申請は4月9日から30日まで。京畿道災難基本所得申請専用ページ(<http://basicincome.gg.go.kr/>)にアクセスし、個人が保有する信用カード及び京畿地域貨幣カードの番號と、本人名義の携帯電話番號で本人認證手続きを行う。未成年者は両親が、世帯主または世帯主の配偶者として代りに申請可能。

訪問申請の場合、申請期間は4月20日から7月31日までで比較的余裕がある。受付がいつ頃に集中す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家族数及び住民番號の生まれ年の最後の数で區分した曜日制を施行するので注意が必要。

例えば4人以上の世帯は4月26日まで、3人世帯は4月27日~5月3日、2人世帯は5月4日~10日、1人世帯及び未申請者は5月11日~17日に申請すること。

この場合にも生まれた年度の最後の数に注意。1990年に生まれ家族数が3人ならば、4月27日~5月 3日の期間の金曜日に申請する。1993年に生まれ家族数が2人ならば、5月4日~10日の期間の水曜日。

申請を望む多文化家族は該當する日にち、及び曜日に身分證を持参し住所地の行政福祉センター及び農協銀行を訪問すればよい。地域別行政福祉センターは曜日制を施行する4

月20日から 5月17日の間の平日20時、週末及び公休日18時まで受け付ける。

どう使うのか？

外國人災難基本所得はすべて先払カード形式で支給される。5月中旬以後から居住する地域の 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を訪問申請する。外國人情報システムで確認手続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農協銀行での災難基本所得申請は不可能。韓國人、外國人兩方とも災難所得申請以後に使用承認文字メッセージを受ける。文字メッセージを受信した日から3ヶ月以内、または8月31日までに支給された災難基本所得をすべて使用せねばならない。使用しない金額は期間以後回收される。

登録あるいは發給されたカードで決済すると、自動的に振り落とされるシステムで、住所地市郡のデパート、大型マート、遊興業所などを除外した年間売り上げ10億ウォン以下の売り場にて決済可能。ただし 在來傳統市場の場合、10億ウォン以上の売り上げのある業者でも可能だ。より詳しい情報は京畿地域貨幣ホームページ(<http://www.gmoney.or.kr/>)で近隣地域貨幣加盟店を検索すること。

〈한글 기사 17면〉

번역 아키오 기자

低收入家庭可获得300万韩元的工作奖励和70万韩元的儿童奖励

政府为低收入家庭最多支付300万韩元的补贴，每个孩子70万韩元。对于因科罗娜而生活困难的多元文化家庭来说，这是个好消息。劳动奖励制度是一种福利制度，它通过为收入和财产少于一定数额的家庭工作而支付奖励，从而鼓励劳动并支持收入。向18岁以下（2001年1月2日或之后出生）的孩子提供儿童补贴，以支持其抚养孩子。对在职儿童的补贴是根据其有配偶和有无抚养家庭，分单亲家庭、单职工和双职工家庭来支付。

单户家庭是独居的家庭，单户家庭的总工资低于300万韩元，双户家庭是每位申请人和配偶的总工资超过300万韩元的家庭。

其中，2019年有收入，商业收入和宗教收入，并且如果这对夫妇的年总收入低于标准金额，则可以为在职儿童提供补贴。

就工作奖励而言，单户家庭的标准金额是总收入少于40至2000

万韩元，有工作的单职工家庭的标准金额少于40至3000万韩元，双职工家庭标准金额少于600至3600万韩元。单职工家庭的儿童奖励金不到40至4000万韩元，双职工家庭的儿童奖励金不到600至4000万韩元。

此外，截至2019年6月1日，所有家庭成员拥有的房屋，土地，建筑物和存款等财产的总金额必须少于2亿韩元。目前，债务并未从财产中扣除，并且在申请为在职儿童提供补贴时，国家税务局对家庭成员进行财务检查以进行审查。

劳动奖励的支付标准是单身家庭为3至150万韩元，单职工家庭为3至260万韩元，双职工家庭为3至300万韩元。每个孩子的奖励金在50至70韩元之间。如果家庭成员的财产总数在1.4亿至2亿韩元之间，则只提供50%。如果您在五月申请，它将在八月支付。

2019年，总共556万个家庭的目标是获得收入信息和劳动力激励措施。国家税务局已选择支付半年付款制度，并指示5月申请3.65亿户家庭，其中不包括已申请的220万户家庭。

国税局向该主题发送了通知。但是，即使他没有收到通知，他也说他/她可能有资格申请，因此他/她应该自己进行审查。

如果由于丢失或接收信息失败而导致不知道“要指导的人”或“个人验证码”，则可以在Hometax网站或Sontax（智能手机应用程序）上进行检查。申请时，您必须输入您的帐号和手机号码，如果您或您的配偶有义务申报全面所得税，则必须首先申报。

如果您对补贴申请有任何疑问，可以联系当地的国税局特定激励电话中心。

〈한글 기사 36면〉

왕그나 기자

ข้อมูล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 ,เด็ก ๆ เริ่มเข้าโรงเรียนในต้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ได้หรือไม่?

วิกฤตการณ์โคโรนาได้ชะลอการเข้าร่วมของเด็ก ๆ ที่ไม่สามารถ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ที่ต้องอยู่บ้านกับลูกที่กำลั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

ด้วยเหตุนี้ความปรารถนาของพ่อแม่ที่ต้องการให้บุตรหลาน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ก็เพิ่มขึ้นเช่นกันแต่รัฐบาลได้เปิดเผยเวลาโดยประมาณใน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Chung Se-gyunเขาสั่งกล่าวในวันที่ 27 เมษายนว่า"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ควรดำเนินการทุก

ขั้นตอนเพื่อแจ้งให้สาธารณชนทราบถึงเวลาและวิธีการเข้าโรงเรียน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ยังให้พิจารณา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และ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ที่จะต้องสอบก่อนและมีสมาธิใน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ตามลำดับ"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ซุงเป็นประธาน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เคาน์เตอ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ภัยพิบัติกลางสำหรับการติดเชื้อ coronavirus (โคโรนา 19) ที่อาคารรัฐบาลในโซลเขาวินิจฉัยกล่าว" ความ

ปลอดภัยของเด็กสำคัญม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ถูกทำลาย

ได้ด้วยสิ่งใดๆแต่นั้น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พวกเขา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ให้นักเรียนถูกขังอยู่ที่บ้านได้และรอคอยการสิ้นสุดของไวรัสโคโรนา 19"

ก่อนหน้านี้รัฐบาลตัดสินใจที่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ระหว่างวันที่ 20 เมษายนถึง 5 พฤษภาคมดังนั้นเรากำลังพิจารณาด้วย

ว่านักเรียนที่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เรียนออนไลน์ดีหรือไม่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ซุงกล่าวว่า"ความคิดของชุมชนการศึกษา

ชุมชนและผู้ปกครองมีความสำคัญเท่ากับ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ริ่มต้นออนไลน์"มีเวลาไม่มากนักผู้ปกครองมีความสำคัญ

เท่ากับ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ริ่มเข้าเรียนออนไลน์

"ถ้าคุณไปโรงเรียนมีหลายสิ่งหลายอย่างที่เตรียมสำหรับโรงเรียนแนวหน้าคุณต้องสวมหน้ากากและทำ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 วิธีการรักษาทางร่างกายโดยระยะห่าง, "มันไม่ได้อยู่ใ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พียงหนึ่งหรือสองเรื่องที่เรา

ไม่สามารถผ่านไป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ใน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อาหารแต่ต้องใช้เวลาเตรียมการอย่างน้อยหนึ่งสัปดาห์

เมื่อพิจารณาเรื่องนี้เหล่า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ซุงจะเป็นผู้แนะนำเวลาและวิธี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ล่าสุด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และมัธยมต้นได้รับคำสั่งให้พิจารณาวิธีเข้าโรงเรียนตามลำดับ

นอกจาก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จะปฏิบัติต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กับสุขอนามัยทุกที่ที่คุณต้องการไปว่า "คนที่ไปสำหรับกรออกนอกบ้านไปวันหยุดสุดสัปดาห์หลายคนทำคุณทุกคนที่คุณรู้ว่าชุมชนให้ปลอดภัย. ในช่วงเทศกาลวันหยุด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มันจะเป็นการวัดว่าเรา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ประสา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เราหรือไม่"

〈한글 기사 21면〉

이아리 기자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온라인개학 지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공백 방지 위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휴원·휴교 연장 결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 3월 9일부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구래동에 소재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2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4월 28일 현재 신청아동 13명, 참여아동 7명의 아이를 돌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개학 실시로 인하여 초등학교 3명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아와 초등을 나누어 배치 중이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 돌봄인력을 유아 3-4명당 1명, 초등학교 3명당 1명으로 연령별 그룹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위생과 관리에 더욱 힘을 쓰고 있으며 아동 건강관리 체크 및 담당자, 돌봄인력, 직원 등의 건강체크, 비상연락망 구축 관리 등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

현재 방역소독을 마치고, 수시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내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나눔터 내 외부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일 체온측정과 손 씻기 강화, 개별 사물함 소독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센터에 자녀를 긴급돌봄 중인 보호자는 “센터에 와보니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이 된다”며, “다양한 놀이도구, 놀이활동도 진행되고 있어 맘 편히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위해 정서지원 상담 및 마스크 등 후원품 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김포건가다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아지 안도록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 휴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성교육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봄 전문가를 각 가정으로 연계 및 파견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경기도, 김포시 위탁으로 김포시는 2007년부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은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부담을 줄여준다.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의 돌봄서비스 부담금도 4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유형 판정을 받으면 가구소득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996-59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며 이미 발생된 문제를 최적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행복다담돌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低所得世帯に勤勞獎勵金、 最大300萬ウォン・子女獎勵 金70萬ウォン支給

政府が低所得世帯に勤勞獎勵金を最大300萬ウォンづつ、子女獎勵金を子女一人当り70萬ウォンづつ、支給する。コロナ感染蔓延のため経済的に苦しい多文化家族には嬉しいニュースだ。

勤勞獎勵金は所得と財産が一定金額未満の世帯を対象に、働いた分の獎勵金を支給し勤勞を獎勵し、所得を支援する福祉制度だ。子女獎勵金は子女養育を支援するために、満18歳未満の子女(2001年1月2日以後出生)がいる場合に支給する。

勤勞子女獎勵金は配偶者、扶養家族の有無により単身、方働き、共働き世帯と区分して支給する。

単身世帯は一人で暮らす世帯、方働き世帯は給料合計額などが300萬ウォン未満の世帯、共働き世帯は申請人と配偶者それぞれの給料合計額が300萬ウォン以上の世帯だ。

このうち2019年には勤勞所得と事業所得、宗教人所得があり、夫婦合算年間総所得が基準金額未満ならば勤勞子女獎勵金の支給要件が満たされる。

勤勞獎勵金の場合、単身世帯基準金額は總所得4萬~2000萬ウォン未満、方働き世帯は4萬~3000萬ウォン未満、共働き世帯は600萬~3600萬ウォン未満だ。子女獎勵金の支給基準金額は方働き世帯は4萬~4000萬ウォン未満、共働き世帯は600萬~4000萬ウォン未満だ。

また2019年6月1日基準で、世帯構成員全員が所有する住宅と土地、建物、預金など、財産合計額が2億ウォン未満であること。負債は財産から差し引かず、勤勞子女獎勵金申請時に國稅廳が審査のために世帯構成員の金融照會を施行する。

支給額は勤勞獎勵金基準単身世帯3萬~150萬ウォン、方働き世帯3萬~260萬ウォン、共働き世帯3萬~300萬ウォンだ。子女獎勵金は子女一人当り50萬~70萬ウォン。世帯員財産合計が1億4000萬ウォン~2億ウォン未満の場合、50%の支給となる。5月中に申請すると8月に支給される豫程だ。

2019年の所得に対する勤勞・子女獎勵金案内対象は計568萬世帯だ。國稅廳はこのうち半期支給制度を選択、すでに申請した203萬世帯を除外した365萬世帯に5月中の申請を案内している。

國稅廳は対象者に案内文を發送した。案内文を受け取っていないでも申請資格に該当することもあるので、要件などを検討することを勧めている。

案内文をなくしたり受け取っておらず、‘案内対象者可否’や‘個別認證番號’がわからない場合、ホームテックスウェブサイトかソンテックス(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ケーション)で確認可能。申請時には本人名義の還給口座番號と携帯番號を必ず入力すること。本人や配偶者に綜合所得稅確定申告義務がある場合、これを先に行うこと。獎勵金申請と關聯して詳しいことは地方國稅廳別獎勵金専用コールセンターにて案内。〈한글 기사 36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과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온라인 강좌 운영해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상시 모집...12월 중순까지 진행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강좌의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재개했다.

그간 대면식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개설되지 못한 채 잠정 연기 상태에 있었다.

이에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결혼이민자 대상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좌

를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한국어교육 강사진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시스템 운영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거쳤다. 그사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및 센터 이용객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한국어교육 온라인 강좌의 교육기간은 4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며 수강신청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상시 접수받는다.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에게 센터의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회화를 배우는 한국어교육 특별과정과 한국어 읽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토픽읽기과정, 한국어와 지역문화를 함께 배우는 지역문화 활용 한국어교육과정, 1:1한국어교육 과정 등 총 4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해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과천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첫날 온라인 수업을 마친 학습자 역시 “지난 3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무척 기다렸다.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컴퓨터 화면에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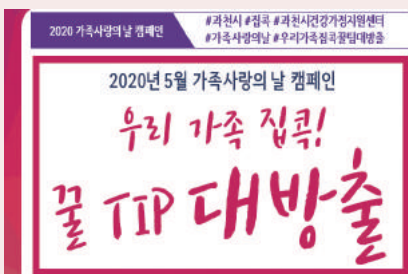
니까 신선하다. 화면에 친구들 자녀의 모습도 비치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 수업을 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온라인으로나마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잘 적응해준 학습자들에게 고맙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센터에서 모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개설된 이번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503-0070)로 연락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정에서 참여가능한 이색 이벤트 개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 감염예방 원칙 지키며 진행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가정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콘텐츠를 다수 개발해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가족 행복 포레스트 찾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앨범을 통한 추억

찾기 이벤트를 시행한다.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우리가족 행복 포레스트 찾기’ 행사는 부모 및 자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가족에게는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미션이 주어진다. 가족 앨범을 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감사 일기를 쓰는 등 가족의 고마움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션을 모두 달성한 참여 가족에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수령하는 서프라이즈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가족 집콕! 꿀팁 대방출

5월 가족사랑의 날 맞이 캠페인 ‘우리 가족 집콕! 꿀팁 대방출’ 행사는 과천시에서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모두 참

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과천시 거주 가족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기간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과천시 거주 가족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회적 거리두기 노하우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참여 소감을 게시하면 된다. 이때 게시물 끝에 #과천시 #집콕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의날 #우리가족집콕꿀팁대방출 등의 해시태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그리는 유화 페인팅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과천시에서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시민이 있는 20가족에게 유화 페인팅 키트를 제공한다. 해당 키트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것

으로 한 가족에 하나씩 배부되며 캔버스, 물감, 붓 2개, 벽고리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2020년 신규 참여 가정을 우선 접수받는다. 5월 15일 참여가 확정된 가족은 우편을 통해 키트를 수령 받아 페인팅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 활동이 끝나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 및 완성 사진을 1장씩과 함께 소감문을 작성해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미션을 완수한 가족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참여를 원하는 과천시 거주 가족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qchfsc.familynet.or.kr>)를 확인하거나 센터로 전화(02-503-0070)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과천시청 02-502-5001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503-007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56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031-442-2876 범죄신고 112 과천경찰서 18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가족 위해 ‘색다른 가족사랑의 날’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열매와 채소 키우는 프로그램 진행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아이 양육 때문에 가정에서만 활동하는 안양 거주 가족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식물 키우기 활동이 진행 중이다(사진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에 진행한 가족사랑의 날 활동)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사랑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가족을 구현하고 가족 친화적이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과 협동심 강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총 32가족이 참가자로 확정됐다. ‘가족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문장으로 작성하기’ 등의 공모 글을 보낸 가족 중에서 다자녀 순서로 참가자를 확정했다.

이 중에는 조손가정 1가족, 다문화가족 8가족, 맞벌이 가족 등도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매친구 키우기 세트’와 ‘고기친구 키우기 세트’ 등 물품 키트 수량이 맞벌이로 불가능한 가족은 택배로 발송했다.

열매친구 세트는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등의 열매를

키우는 프로그램이며 고기친구는 상추, 적겨자, 쑥갓 등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5월 30일까지 식물을 심은 후 식물 일지나 식물 성장 사진 등을 작성해 센터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식물 일지를 작성하고 식물 수확을 하는 과정, 고기 파티를 여는 가족 사진(고기세트의 경우) 등 3가지를 센터 메일로 송부 가족에게는 추후 진행되는 가족사랑의 날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간의 협동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서로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 시대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多元文化家庭如何申请京畿道灾后基本收入？

根据家庭成员人数和出生年份申请,未获得国籍的多元文化家庭大约两周后申请.

从4月9日起,可以在线申请京畿道的灾害申请基本收入.截至2020年3月23日,京畿道所有居民将得到每人100,000韩元,用于战胜科罗娜19所遭受的经济危机的灾害基本收入,无论其收入和年龄如何.

京畿道在3月24日宣布灾难基本收入时,京畿道宣布将没有国籍的外国人排除在外,但后来应移民组织和两性平等和家庭部的要求,政府审查了对外国人的支持.最终,4月20日,李在明知事宣布,向婚姻移民和永久居民等外国居民支付等额的灾害基本收入.

我该如何申请?

这种基本的灾害收益应用程序通过多样化的方法来引起人们的关注,以最小化接触并防止由于社会距离而引起的感染.有两种在线申请方法,分别是个人信用卡或京畿道的本地货币卡,以及通过离线应用程序发行新的预付卡.从5月中旬开始,预计将为无法直接申请的老年人和残疾人等弱势群体提供接待服务.

京畿道灾害基本收入在线申请时间为4月9日至30日,可以访问京畿道灾害基本收入专用页面(<http://basicincome.gg.go.kr/>).您必须使用卡号和手机号进行身份验证过程.未成年人可以代表父母中的住户或住户的配偶申请.

对于访问申请,申请时间从4月20日到7月31日相对宽松,但应注意的是,工作日制是通过除以家庭成员数和居民出生日期的最后一位数字来执行的,以避免拥挤.

例如,对于4人或4人以上的家庭,4月4日至10日,对于

3人的家庭,4月27日至5月3日,对于2人的家庭,5月4日至10日,对于单人家庭5月11日您可以在17日申请.

即使在这种情况下,它还是在出生年份结束后于1990年出生,并且如果有三位家庭成员,您可以在4月27日至5月3日的星期五申请.如果您出生于1993年并且有2个家庭成员,则可以在5月4日至10日星期三申请.

希望申请的多元文化家庭可在相应的日期和星期带上身份证,到指定的行政福利中心和附近的农业银行.实行日间制的4月20日至5月17日,地区行政福利中心从工作日的凌晨20点开始,周末和公共假日的凌晨18点开始接受.

在哪里可以使用?

基本的国外灾难收入将以预付卡的形式支付.5月中旬之后,您可以通过访问您所在地区邑平面洞的行政福利中心申请.无法通过农业合作银行申请基本灾难收入,因为必须验证外国信息系统.

申请灾难收入后,国内外居民都将收到一条短信以批准使用.您必须在收到邮件后的3个月内或直到8月31日使用收到的所有基本灾难收入.未使用的金额将在期限后收回.注册或已发行卡的付款会自动扣除,您可以在年销售额低于10亿韩元的商店中付款,但不包括地址所在城市的百货商店,大型超市,娱乐场所和私营企业.但是,在传统市场的情况下,营业额超过10亿韩元的企业也有可能.有关在哪里使用它的更准确的信息,您可以在京畿道地区货币网站(<http://www.gmoney.or.kr/>)上搜索附近的当地货币商人.〈한글 기사 17면〉

왕그나 기자

안양 청년드림 가이드북 발간
다문화가족도 청년정책 살펴요

청년도시 안양시가 금년도 청년정책을 총 망라한‘2020 안양 청년드림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책자형인 청년드림 가이드북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자립, 청년성공, 청년행복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청년자립 분야는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공간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고, 청년성공 분야는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직장체험 등이 핵심적으로 정리됐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문화, 주거복지,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등은 청년행복 분야에서 열거했다.

이 가이드북은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관련 정책도 소개하고 있다.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창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해외취업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27개 사업을 그림과 도표를 곁들여 편집, 이해를 돕는다.

3천부가 발간된 가이드북은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도서관, 관내 대학교, 청년공간 등에 배포됐다. 안양시는 홈페이지(www.anyang.go.kr/시민참여/청년정책)에도 게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을 청년도시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이 가이드북이 청년층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관계당국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영유아 놀이키트 드라이브스루 배부

6일 신청 받아, 다문화가족도 지원해요



안양시가 놀이키트를 배부해 영유아들의 정서안정을 돕고 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이 휴무, 집안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놀이키트를 신청 받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접촉방식인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놀이키트는 영아용과 유아용 2종이며 각 50세트씩으로 구성돼 있다. 개구리피리, 얼굴풍선, 촉감팩, 공룡색칠가방, 종이경찰서, 고래망원경 등 혼자서도 즐기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장난감들이다.

안양시는 지난 17일과 24일 놀이키트를 전달하고, 28일과 5월 6일 두 차례 더 신청을 받는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관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4월 28일 신청한 가정은 5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5월 6일 신청한 가정은 8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 사이에 각각 시청을 방문,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직원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한 채로 놀이키트를 받아 가면된다.

놀이키트 신청은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aycteducare.go.kr)에서 각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총 4백 세트를 준비, 지난 두 번에 걸쳐 제공한데 이어 각 백 세트씩 2백 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놀이키트는 방역소독도 마친 상태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철저히 차단된다. 한편 시가 장난감대여소로 운영하는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 중에 있으며, 회원에 한해 장난감을 대여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정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기고]

코로나19 사태는 공교육 시험대

조광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탓에 교육계가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방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언제 개학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했다. 교사들은 부랴부랴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고 학생들은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마음이 급한 고3학생과 학부모들은 뒤뜰된 학사일정에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온갖 제도를 도입하고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은 늘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가 개학을 수차례 연기하며 허둥대는 사이 공교육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진작부터 인터넷 강의(인강) 시장에 진출한 대형학원들은 물론, 중소학원들까지 뛰어들었고 그 매출은 갈수록 뛰고 있다. 대형학원 인강 매출은 지난해보다 2.5배가 넘었고 계속 성장 중이다.

반면에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는 학교 교사들은 1주일 만에 엉성한 준비를 동원해 급조한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명학원의 콘텐츠를 따라갈 도리가 없다. 학교의 원격교육이 열떨결에 시작됐지만 안타까운 현실소만 드러나며 사교육 시장만 살찌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일시적이지만 폭증하는 업무로 학생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도 교사들은 각종 행정업무와 회의 참석에 정신이 없는데 이젠 온라인 수업준비까지 더해져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0여명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들과 접촉하고 성장과정을 꼼꼼히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기왕에 원격수업을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인강 경험을 토대로 향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첨단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말하며 언급하는 솔루션은 외국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수업 플랫폼뿐이다. 하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스타트업을 조금만 지원한다면 자체 플랫폼 육성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잡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는 공교육 현장에 또 한번의 반성과 함께 새 바람을 가져올 전망이다. 앞으로도 감염병은 물론, 다른 비상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려면 지금부터라도 발상의 전환과 준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이 기고문은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2020 태내기 부모교육

“10개월의 기다림 그리고 부모미래역할”

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15명 (선착순 마감)

일정: *해당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일시	내용
1회기	5.20.(수) 10:00~12:00	임산부의 태교 및 건강관리 교육
2회기	5.21.(목) ~5.29.(금)	우리 아이 첫 조끼 만들기

진행내용: 해당 일정과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듣기
(5/20)



센터에서 재료 수령 후
가정에서 조끼 만들기
(5/21~5/29)
*2층 사무실 앞에서
전화주세요.



활동 사진과
감상문을
찍어 전송하기
(수령일~5/29)



위 과정에
모두 참여해
소정의 선물받기

참가비: 무료

접수방법: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nyang.familynet.or.kr/>) 내 신청

문의: 교육상담팀 나혜주(031-8045-3692)

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단된 언어발달지원사업, 가정에서 하는 활동키트로 살렸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가정언어촉진활동키트 프로그램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교육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성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대체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이 중지됨에 따라 대상자를 위한 가정언어촉진활동 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사업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언어 촉진 및 상호작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측은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자 21명을 대상으로 키트제작 대상자의 연령 및 언어능력과 부모의 활동 참여 의지를 고려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언어촉진활동 키트를 배포했다.

이 키트에는 4~5개의 활동 재료와 언

어발달지도사가 제작한 활용 방법 안내문이 포함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욕구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 부모에게 참고할 활동사진 및 동영상상을 전달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활동의지를 자극했다.

또한 키트 활동 이후 사진 및 동영상상을 지도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지도사는 받은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 상호작용 및 언어적 피드백을 제공

했다. 키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했으며 센터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우편함에 비대면으로 투입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중단돼 걱정이 많았으나 교육키트와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대면수업을 보완 및 대체할 수 있었다”며 “비대면 프로그램의 가정언어촉진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Cách thức đăng kí nhận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Đăng kí theo năm sinh và số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người chưa có quốc tịch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g 2 tuần sau đó có thể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9 tháng 4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thông qua cổng Internter. Nhằm khắc phục tình trạng kinh tế bị trì trệ trầm trọng do dịch virus Corona 19 gây ra, tính đến ngày 23 tháng 3 năm 2020 tất cả các công dân đang sinh sống và có địa chỉ thuộc địa bàn tỉnh mỗi người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100,000won/người/lần.

Vào ngày 24 tháng 3 khi tỉnh công bố đối tượng có thể nhận được thu nhập này thì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nhưng chưa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không được nhận nhưng sau đó Hộ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và Hội phụ nữ có công văn phản bác gửi lên Tỉnh nên tỉnh đã xem xét lại điều kiện về đối tượng có thể nhận sự hỗ trợ này. Cuối cùng, vào ngày 20 tháng 4 ông Lee Jae Myeong đã cho biết rằng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có quốc tịch cũng như nơi đang sở hữu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F-5 có quan hệ hôn nhâ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ương đương giống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ách thức đăng kí.

Việc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lần này thu hút sự chú ý của đông đảo người dân bằng cách đa dạng

hóa các phương pháp tiếp nhận đăng kí để giảm thiểu tiếp xúc và phòng ngừa lây nhiễm theo khoảng cách xã hội. Có hai cách để có thể đăng kí đó là sử dụng thẻ tín dụng cá nhân và thẻ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đăng ký trực tuyến hoặc nhận thẻ trả trước mới thông qua đăng ký offline. Tầng lớp người dân cần được xã hội bảo trợ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ăng kí sẽ được hỗ trợ đăng kí trực tiếp thông qua dịch vụ tìm đến nhà từng người để hỗ trợ, thời gian hỗ trợ bắt đầu từ giữa tháng 5.

Việc đăng ký trực tuyến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của tỉnh Gyeonggi được bắt đầu từ ngày 9 đến ngày 30 tháng 4 và phải được xác nhận bằng số điện thoại di động khi đăng kí cấp thẻ tín dụng hay thẻ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thông qua trang web <http://basicincome.gg.go.kr/> và số điện thoại di động của cá nhân. Cha hoặc mẹ có thể thay thế đăng kí nhận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trẻ chưa đủ tuổi vị thành niên.

Trong trường hợp đăng ký trực tiếp, thời gian đăng ký tương đối rộng rãi, được bắt đầu từ ngày 20 tháng 4 đến ngày 31 tháng 7, nhưng cần lưu ý rằng để tránh việc thu hồi cùng một lúc số lượng hộ gia đình và số người cư trú sẽ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số cuối năm sinh. Ví dụ,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sẽ có thời gian đăng kí

đến hết ngày 26 tháng 4, gia đình 3 thành viên sẽ có thời gian đăng kí từ 27/4 đến 3/5, gia đình có 2 thành viên sẽ có thời gian đăng kí là từ 4/5 đến 10/5 và cuối cùng gia đình có 1 thành viên thời gian đăng kí sẽ từ 11/5 đến 17/5.

Cũng giống như ví dụ trên, tỉnh sẽ căn cứ vào số cuối của năm sinh để tiến hành tiếp nhận hồ sơ, sinh năm 1990 và thuộc gia đình có 3 thành viên thì thời gian đăng kí sẽ là từ 27/4 đến 3/5. Sinh năm 1993 và thuộc gia đình có 2 thành viên thì thời gian đăng kí sẽ là từ 4/5 đến 10/5.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hãy chú ý năm sinh của mình và cầm theo chứng minh thư nhân dân hay thẻ định cư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ủy ban nhân dân hoặc ngân hàng NongHyup gần khu vực mình đang sinh sống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đăng kí.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thuộc từng khu vực sẽ tiến hành nhận hồ sơ hỗ trợ theo từng thứ trong tuần bắt đầu từ 20/4 đến 17/5, ngày thường có thời gian kết thúc là 20h, cuối tuần và các ngày lễ thời gian kết thúc là 18h.

Tiền hỗ trợ này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ại những khu vực nào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chi trả dưới dạng thẻ trả trước. Từ giữa tháng 5,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đến trực tiếp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và đăng ký tại khu vực đang cư trú. Vì phải trải qua quá trình xác nhận hệ thống thông tin nước ngoài nên không thể đăng ký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thông qua ngân hàng Nonghyup.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như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ều nhận được tin nhắn văn bản phê duyệt sử dụng sau khi đăng ký thu nhập cơ bản hỗ trợ dịch bệnh thiên tai. Người được cấp phải sử dụng tất cả tiền hỗ trợ này trong vòng 3 tháng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n nhắn hoặc đến ngày 31 tháng 8. Số tiền chưa sử dụng được thu hồi sau kỳ. Nếu thanh toán bằng thẻ đã được cấp thì sẽ được khấu trừ tự động và có thể thanh toán tại các cửa hàng có doanh thu hàng năm dưới 1 tỷ won ngoại trừ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lớn, cửa hàng giải trí, doanh nghiệp tư nhân ở thành phố trên địa bàn mà người được cấp thẻ đang sinh sống. Tuy nhiê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là các quán trong chợ truyền thống thì thẻ vẫn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các bạn vui lòng truy cập vào trang web <http://www.gmoney.or.kr/> để tìm hiểu thêm. <한글 기사 17면>

강혜나 기자

서철모 시장, 제암 고주리 학살사건 참배, 다문화가족도 역사 기억해요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10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찾아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추모제를 대신해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헌화로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유공자들의 넋을 기렸다. 101년 전인 1919년 4월15일 발생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당시 그 어느 지역보다 조직적이고 치열했던 화성 3·1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군의 계획적인 보복이었다.

제암리 교회에 무고한 주민 23명을 가둔 채 학살하고 31개 가옥을 불태웠다.

인근 고주리에서는 김흥렬 선생을 비롯한 일가족 6명을 주모자로 몰아 총살했다. 하루 동안 모두 29명이 학살당한 유례없는 반인륜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와 임시정부 파리위원회가 발행한 ‘독립운동사 3·1운동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한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내며 국내의 독립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서 시장은 “시민 모두 화성 독립운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립영웅들의 헌신과 투쟁이 화성의 역사와 전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제부마리나 복합편의공간 조성 오진택 도의원, 계획안 원안가결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에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부마리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복합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평소 새솔동 버스운행문제, 119안전센터 신설,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수인선 어천역사 신설, 동화천 개수사업 등 화성시 관련 현안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 의원은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레저, 관광 시설이 부족하였는데, 이번 관리계획안에 제부마리나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고 하니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팔탄과 남양에 119센터 신설이 포함된데 이어 화성에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지은 기자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 소독지침 활용)

6/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8/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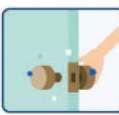
**폐기물 봉투**

**같이 입을 옷**

3/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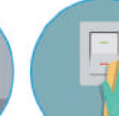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5/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 + 찬물 990ml (1,000ml 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7/9

2020.3.24.  행정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9/9

III. Educational support systems

01 Educational institut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 General kindergarten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re designated 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to provide students with programs that are customized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enhance their multicultural sensitivity.
 - **Multicultural awareness programs:**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global civic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ti-bia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etc.
 - **Customized programs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 education, counseling, learning assistance (mentoring), etc.
- If a student wishes to enter a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 he or she may be able to transfer or enroll in a school within or outside of his or her residential district upon request from his or her parents (guardian), which will require the permission of the school's principal.
-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s accessible by contacting the relevant Office of Education or by visiting the website of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e Education website (nime.or.k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kindergartens)

- Kindergarten-typ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offer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al support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mot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al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r otherwise).
 - **Language education:** Pre- and post- program language assessment, unified language education, individual language education, etc.
 -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aim to enhanc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tual understanding for children, teaching staff, and parents

Korean language class

- In order to help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came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or foreign students to adapt to the Korean schools, **Korean language classes** are offered 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to provide them with intensive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Students who return to their original classes after completing the Korean language classes will be monitored (for 6 months) to determine their adaption to the school and possibly benefit from additional support such as mentoring and after-school classes.

- If your child's school does not run a Korean language class, the student will be entitled to be benefited by the Korean language programs offered through the outrea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dispatching Korean language instructors to schools attended by students who require Korean language classes.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available for multicultural students who wish to suspend their studies or receive an education that matche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 Information on **accredited consigned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that are designated and run by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is obtainable through inquiries to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or the website of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e Education" (nime.or.kr).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School	Type	Features	Fees
The School of Global SARANG (Guro-gu, Seoul) globalsarang.com 02-6910-1004	Elementary school	- Multilingual education to learn Korean and a second language such as English or Chinese - After-school classes and free aptitude education - 1 class per grade - Preliminary school non-graded system	Free ※ Including expenses for after-school classes, specialty and vocational classes, and meals
	Middle school	- Alternative school with recognized credits (consented alternative school in which education is received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and then you return to the original school afterward)	
Seoul Dasom Tourism High School (Jongno-gu, Seoul) sdshs.kr 02-6743-0510	High school (vocational)	- Vocational education for improve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better social integration - Standard subjects and vocational subjects aimed at students receiving certifications - Assigning of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 - Offers tourism content and tourism service departments - Students selected based on document assessment and in-depth interviews	Free ※ Uniform and meals excluded
Korea Polytechnics Dasom High School (Jecheon, Chungcheongbuk-do) kpoackr/dasom 043-649-2800	High school (vocational)	- Technical training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those who came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 Full-time boarding - applications accepted nationwide -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re acquired by all (1-8 qualifications are obtainable per person) - At least 80% of the students become employed by large companies/state-owned companies or proceed to university - Teaching provided for each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club activities, UNESCO school - Academic departments: Computer Mechanics, Plant Installation, Smart Electronic - Selection: Document screening and in-depth interview (Sept., Dec.) - An institution operated by Korea Polytechnic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Admission counseling and school visits are available at all times.	Free ※ Tuition, boarding expenses, and expenses for snacks and after-school classes included
Incheon Hannuri School (Namdong-gu, Incheon) hannuriscs.kr 032-627-225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consolidated	- Recruits nationwide, accredited consignment-type alternative school (As this school is a consignment-type school, students go back to their original school after a set period of education is completed.) - An educational stepping stone with a focu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elementary, 1 class) - 50% standard subjects and 50% special subjects - Boarding provided (completely free, students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or older can ente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ree High school: Charged (amount similar to that charged by general public schools) ※ Boarding expenses charged

School	Type	Features	Fees
Haemill School (Hongcheon, Gangwon-do) haemillschool.gwv.mskr 033-433-8761	Middle school	-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A boarding school with small classes (20 students per class) - Unified education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Korean students - Classes are offered to meet the level of each student without dividing them by school year - Offers Korean language classes for students who entered Korea after living overseas - Bilingual education (Chinese, Japanese, Vietnamese) - Operates self-governing student bodies such as the Haemil Assembly - Enables students to explore domestic and overseas career paths and conduct volunteer activities abroad	Free ※ Boarding expenses included

※ Costs for school meals, boarding expenses, uniforms, and different programs vary according to the school and area.

International schools

- International schools provide education for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students who returned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for 3 years or longer, and children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s who are unable to continue their education at general schools due to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 If at least one parent holds a foreign citizenship, the student is eligible to apply for admission to an international school. Although the admission criteria vary from school to school, applications are generally accepted throughout the year.
-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admission procedures and tuition fees for each school are available on the **International School Information website** (www.isi.go.kr).

02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Mentoring for multicultural students

- **Mentoring for multicultural students** is aimed at providing suppor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a multicultural background to adapt to school life and meet the basic academic standards by matching them 1:1 with university students. Students may participate in the program by applying through their school or a community child center.
- University students will pay visits to schools attended by multicultural students to help them with their studies after school hours or during vacation, and each student is eligible to receive about 20 hours of mentoring per week (40 hours per week during vacation).

03 Tuition support

Support for children aged 3-5 in the Nuri course

- All children aged between 3 and 5 who attend kindergarten are entitled to benefit from child tuition support regardless of their parents' income level.
- Parents (guardian) may apply through a direct visit to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their place of domicile or through the Bokjoro website (online.bokjoro.go.kr).

Tuition and expense support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re is an education benefit system that offers support to cover educational expenses such as high school tuition and school meal expenses, as well as expenses for auxiliary textbooks and school supplies. Parents (guardians) may apply through a direct visit to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their place of domicile.
- Parents (guardians) may apply for tuition fee support through the website of the One-click application for tuition fee support (oneclick.moe.go.kr) or through the Bokjoro website (online.bokjoro.go.kr).

School Banking

- Although educational expens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uch as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are not charged, parents must still pay for other expenses such as school meals, field trips, and after-school classes. When making such payments, it is convenient to use School Banking, a system that automatically transfers payments to the bank account of 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on a fixed date.

04 Support for school life

Wee class (School counseling office)

- The Wee class, a counseling office set up in the school, provides counseling services for students who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school life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 If your child's school does not offer a Wee Class, the same service can be requested through the Wee Center of the Office of Education in your child's school district.

Wee Center (Student counseling support center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 The Wee Center is a counseling body set up at the Office of Education for students at risk who require proper guidance or a healing process to address fundamental issues that schools cannot resolve themselves, and offers various tailored programs, including counseling services and special education, and prevents student dropouts.
- The Wee Center is available to all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ree of charge. Students can use the Wee Center after obtaining prior consent from the school, and its use can be deemed equivalent to attending school.

도서관도 이젠 비대면 서비스

화성시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활용에



화성시도서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14일 ‘구독형 전자책’을 도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문화가족도 전자책을 활용해 보자.

구독형 전자책은 기존에 도서관에 제공해왔던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도서 한 권당 대출인원 제한이 없어 수요가 많은 도서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hscitylib.or.kr) 내 전자자료 게시판에서 대출하거나,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아 ‘화성시

립도서관’을 검색하면 된다.

지난달 말 기준 4,163종의 소장형 전자책과 이번에 도입된 32,032종의 구독형 전자책 모두 서비스하며, 화성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정회원)는 2주간 5권까지 이용 가능하다.

화성시 도서관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 국민 대상으로 4월 한 달 간 제공하는 ‘책섬터’를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내에서 검색해 이용할 수도 있다.

구독형 전자책은 오는 연말까지 약 24,000여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길어지는 휴관으로 제한된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도서관은 지난달 19일부터 이용객 간 접촉을 줄이면서도 도서 대출이 가능한 사전예약 대출서비스 ‘북 테이크아웃’을 도입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에는 마스크 사각지대 없어요

화성다가, 지역사회 도움으로 마스크 전달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 화성다가)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받았다.

수원영은교회(담임목사 이사무엘)에 소속된 ‘영덕동마을쟁이’(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마을공동체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예방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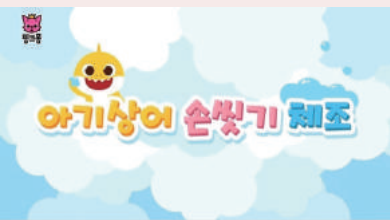
에 전달했다.

이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정, 부모의 잦은 야근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 자발적인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정을 후원 대상으로 선발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센터 직원들은 후원기관의 정성을 담아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직접 전달했다. 송하성 기자

손씻기 체조로 코로나19 극복해요

화성시, 어린이집 대상 3가지 미션 수행



화성시는 5월 7일과 8일 ‘논 산책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봄봄봄 프로젝트 ‘손씻기 체조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를 진행한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이를 통해 어린이 손씻기 영상 이벤트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고 논 산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논 산책 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린이집 어린이 1200명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미션 영상 촬영 후 어린이집을 통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긴급보육으로 등원 중인 원아와 교직원도 손씻기 체조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공유하고, 가정에서 아기상어 손씻기 송에 맞춰

직접 손을 씻는 영상을 촬영하며 또한 가정에서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에게 안부와 응원메시지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3가지 미션을 어린이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수항미 쌀(5500여명)을 증정하고 어린이집은 각 미션마다 2편씩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에 3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한 어린이집에 생태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힘내라 애벌레 놀이보자기’를 증정한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봄봄봄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6월 어린이 논 산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높아진 피로감을 덜어주고자 마련했다”며,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논 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5월 26일~6월 중순까지 현장 모내기 또는 어린이집 앞 뜰에 모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입국주기별
정보제공

다국어 6개
국어 확대

너의 폰에 마이지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줘

경기다문화뉴스 앱
'마이지뉴스' 개발!!!

다운로드 방법

step.01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2

애플 - 앱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3

검색 결과 확인 후 설치 버튼을 누르고
편리하게 어플을 사용한다.

경기다문화뉴스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생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마이지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경기다문화뉴스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더 많은 한국 사회와 복지, 생활, 취업, 교육,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번역기사도 많아요.^^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www.danews.kr 도 방문해 주는 센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다문화뉴스 031-8001-0211로 문의하세요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념 가진 사람들과 다문화가족 노력의 결실

김인순 도의원, 다문화가족 민원 접하고 전방위 노력... 이재명 도지사가 화답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재난상황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재산, 소득, 나이를 따지지 않고 주민 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도 제외됨 없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고 주민세까지 내는데도 제 남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섭섭함과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현숙(가명) 씨는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에서 남편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속상했다. 2011년에 아프리카에서 온 남편과 결혼한 이 씨는 한국인인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본국에도 가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

었다.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경기도의 여러 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경기도의회 의원 문 두드리기로 한 이 씨는 이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연이 닿았다.

이 씨의 민원을 접한 이인숙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마침 이인숙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재난기본소득 문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 안된다는 일념으로 수차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현숙 씨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에 글을 올리며 다문화가족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경기도의 이주민단체와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이재명 도지사가 화답했다.

이 지사는 4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다”고 다문화가족이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소식에 대해 이현숙 씨는 “이재명 지사님이 다문화가족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주셨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며 “특히 이인숙 도의원님이 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인숙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추진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 있었다”며 “하지만 소외된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귀 기울이고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 않게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신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다문화가족의 노력으로 확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5월 중에 다문화가족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교육정보, 초중고 다니는 자녀 있는 다문화가족, 농산물 꾸러미 받는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5월부터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중고 가정에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고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민주당과 정부가 만나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학생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경기도와 서울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예산 준비 등 현실적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는 지자체가 많다.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며 학교 급식이 중단됐고, 급식업체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며 “꾸러미 사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초중고 가정에 5월부터 꾸러미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급방식은 현물배송, 온라인 쿠폰 배송, 농축수산물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아직 이 사업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 등 7곳인데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후 토의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른 사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식자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생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세 차례 긴급 조치로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캠페인과 자가격리자 꾸러미 공급 등으로 1645톤의 활로를 지원했다”며 “꾸러미 사업 추진 방안 확대되면 농업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저장성 농산물은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당에서 정부와 함께 농산물 판로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부터 개학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간 과정의 급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교육청으로서는 하나의 과제”라며 “우리가 더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어 24면, 베트남어 18면, 러시아어 4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